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자기 목숨이라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충성 과 헌신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8-39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2월 27일 (토) 제 157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이미지의 쓰나미” 절제해야

CT, 세계명 따라 마크 갈리가 진단하는 이미지에 노출된 크리스천이 맞는 사순절 묵상 소개

사순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계절이다. 사순절의 전통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40시간을 경건하게 보낸 것에서 시작했다. 사순절은 최종적으로 325년 니케아공의회에서 부활절 전 40일(주일포함 46일)의 기간으로 정해졌다.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연극이나 공연을 보는 일과 각종 오락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40일이란 기간이 현대인들에게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어서 초대교인들처럼 매일 금식하며 엄격하게 사순절을 지키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떼어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아무런 감동과 느낌 없이 그냥 지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일지 모르

겠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 편집장 마크 갈리(Mark Galli)는 '편집데스크' 코너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비주얼 이미지의 쓰나미'에 그냥 손쓸 틈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휩쓸려가고 있다고 진단한다(Can We Survive the Visual Tsunami? Could there be a deeper rationale for the first commandment?).

한마디로,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이미지들의 홍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사순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보는 것들을 중단해야 한다. 절제해야 하는 것이다. 사순절의 미덕은 무엇보다도 절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는 시대적 흐름이긴 하지만 비주얼 이미지에 지나치게 신경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이며, 심계명은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전통적인 자태다. 삶을 돌아켜보면 불수룩, 심계명을 있는 그대로 준수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심계명의 1-3계명들에 복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출20:4)라고 1계명을 주셨다.

형상이나 이미지를 금하는 이 명령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해석한다. 따라서 1계명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종의 ‘전주곡’이라고만 보통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1계명은 바로 모든 이미지들을 금지한다고 해석해야만 한다. 자크 엘뤼(Jacques Ellul)이나 많은 학자들 역시 ‘이미지의 폭발’ 또는 ‘이미지의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형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경배가 단연된 것을 우려했고, 이는 서구에서 ‘이미지 파괴’라는 전통으로까지 계승돼 내려오고 있다.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모든 자극이 된다. 물론 신앙을 끌어올리는 전통적인 영역에서부터 연예, 오락 산업을 통해 시기심을

배양하고 더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이미지에 흠뻑 빠져있다. 그러나 이미지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이 되게 만든다. 반면에, 말씀은 정신적 반응을 요구하게 되고 말씀(언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찾게 된다. 따라서 말씀 또는 구술되는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이 창조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점이 왜 기독교 신앙이 말씀 중심

인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다.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복음 전달의 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중요성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3면으로 계속)

“밀레니엄 세대가 어른 돼도 세상은 변함없다”

이코노미스트, “80년대초-90년대말 출생세대가 기성세대 되면?” 예측 보도

“요즘 젊은이들”을 걱정하는 일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지만, 80년대 초에서 90년대 말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 가해지는 손가락질은 만만치 않다. 진 트웬지와 데이비드 브룩스 같은 작가들은 저서에서 요즘 미국 젊은이들이 “착각에 빠진 나르시시스트”라고 비판하기도 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지는 세상에서 던져지는 손가락질 대신, 밀레니얼 세대가 과연 어른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관점에서, 향후 미래 사회를 재구성해봤다(Their time will come: Ignore the moral panic about lazy, self-obsessed millennials. The world will be fairer when they run it).

이 세대는 동시에 물질만능 주의적이기도 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 대학생의 65%가 장차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답했고, 고등학생의 95%가 시험에서 컨닝을 해본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대보다도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만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중국에서도 게으르고 문란하며 제멋대로인 “소황제”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베이징의 옷가게 탈의실에서 촬영된 섹스 동영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중국 정부는 “반사회주의적 행위”라며 단속하겠다고 나섰지만, 베이징의 젊은이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성지”를 방문해 셀카를 찍어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들이 실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젊은이들이 자주 이직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변덕스러워서 아니라 ‘고용안정성’이라는 것이 이미 과거의 유행이 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탄력근무제와 일/가정의 양립을 원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루에 여섯 시간씩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새로운 세상의 업무 방식일 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갈망과 가벼운 주머니는 우버, 왓츠앱 등 돈을 아낄 수 있는 혁신으로 이어졌다. 정착해서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생산 활동을 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공화당 분열...트럼프 부상이 그 결과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31절 투고칼럼 최학량 목사

 13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KIM Mission - 제51기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캐나다 토론토 지역 세미나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선교)

KIM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미국군주목, 대형) 대표	 김은환 목사 (미국군주목, 대형) 이사장	 김승년 목사 (미국군주목, 대형) 전임이사장	 박연배 목사 (CA NewLifeMission) 부이사장	 손찬식 목사 (SD 삼일교회) 부이사장	 전광성 목사 (NY 하크리세이교회) 부이사장	 김영성 목사 (상해유영광장교회) 부이사장
 바나바스 선교사 (미국군주목) 부이사장	 임은근 장로 (신원교회, 라스베이거스) 부이사장	 최도문 박사 (차이교회, 라스베이거스) 부이사장	 강태원 장로 (베냐민교회, NY) 부이사장	 이광현 장로 (IC Global Church, NY) 부이사장	 황정균 목사 (미주교회, NY) 부이사장	
 손동우 박사 (미주교회, NY) 기도이사	 이원구 안수집사 (신원교회, 서울) 기도이사	 임재원 집사 (KBS 대표, 라스베이거스) 기도이사	 임소영 자매 (킨사, NY) 기도이사	 강동철 집사 (미주교회, TX) 기도이사	 이순권 박사 (미국교회, TX) 기도이사	
 윤세범 장로	 최보람 권사	 윤현경 권사	 최인덕 권사	 서수현 권사	 육진연 권사	 서덕희 집사

[제51기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캐나다 토론토 지역 세미나]

- 일시: 2016년 3월9일(수) 저녁7:30분부터 13일(주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7:30분~10시
- 장소: 토론토 밀알교회 (담임 노승환 목사님, www.milalchurch.com)
- 주제: 축복의 통로 -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강사: 바나바스김선교사(KIM Mission 대표), 노승환 목사 (밀알교회 담임), 이규준 선교사(퍼스펙티브스 캐나다 한국어 디렉터), 임재량 목사 (토론토 삼일교회 담임), 정현범 선교사 (캐나다다민족 기독교연합대표), 조원선 선교사 (인터서브), 손동우 박사 (KIM Mission 부이사장, 뉴저지초대교회 장로, LINKUS President)

[업그레이드 된 World Christian Movement Seminar]

KIM Mission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은 지난 해, 그동안 우리가 14년 간 집중 보강해 온 미션 퍼스펙티브스2 한국어 세미나를 전폭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이름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의 정확한 영문 이름은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이고 그 의미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양성 운동을 위한 (선교) 관점들” 이란 뜻). 우리 KIM Mission 동역자들은 대부분 이 세미나를 여러 차례 수료하고 강의해 온 헌신된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여 동안 이 세미나를 더욱 세련되고 한국인들의 선교 경험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동시에 그 타이틀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양성 운동 (The World Christian Movement)”으로 변경하면서 실 생활과 각자가 섬기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한 선교현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세미나를 진행한 여러 미주한인교회들이 놀랍게 부흥하며 선교에 헌신하는 모습과 이 운동을 위해 개별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김 집사의 평신도 이사진 할 분 한 분의 헌신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 KIM Mission은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를 북미주한인교회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사회, 그리고 여러 선교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 보급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단체를 통해서도 계속 보급되고 있는 기존 한국어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도 적극 후원 협력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Seminar]는 4가지 선교관점들 (퍼스펙티브스) 플러스 “21세기 세계 선교의 2가지 특징들 Trends”와 “한국(조선)교회 초기 선교 역사에서 배우는 선교전략” + “90여개 국 선교지를 직접 탐방하여 연구/분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선교 컨설팅” 등을 포함합니다.

김 미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는 국내의 어디든지 찾아가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 미션 동역자들은 대표로부터 평의원까지 모두가 자비량으로 섬깁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World Christian Movement 이 전 세계로 확산 될 수 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피터 왜그너 Peter Wagner 박사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라고 외친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을 기억합니다.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 연락처: 김 미션 본부 (626. 354. 2294 혹은 213. 215. 9834), E-mail: 1020miracle@gmail.com

공화당 분열...트럼프 부상이 그 결과

뉴스위크, “미국내 반정부 폭력, 우익극단주의자가 최대 위험” 보도(하)

[1572호로 2면에서 계속] 음모론의 대가인 엘릭스 존스는 지난해 3월 19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토크쇼에서 새로운 이론을 선포했다. 미연방정부가 텍사스 주를 침공할 계획이라는 주장이었다. 곧 닥칠 금융 붕괴 때문이거나 오바마가 두 번째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직을 내놓지 않으려는 술책의 첫 단계라는 이야기였다.

우익 극단주의자들의 온라인 포럼이나 게시판은 그 ‘뉴스’로 발칵 뒤집혔다. 미군은 그때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 몇 주 전 주민에게 훈련을 알리기 위해 신문에 낸 지도에 텍사스-유타 주가 적의 영토로 표시돼 있었다. 훈련 목적의 지도에 그렇게 돼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우익 극단주의자들은 미군이 그 지역을 그렇게 선포한 비밀 기록이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한 주 동안 미군 훈련을 둘러싼 온라인 히스테리를 다룬 언론은 지역 신문 두 개에

적발되자 그곳 학생들이 항의에 나섰다.

기독교 목사 출신인 도거트 는 극우주의 무소속 후보로 2014년 의회 선거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는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슬람버그 공격 후 자신들이 영웅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해낼 것이다.” FBI는 이슬람버그 공격 음모의 쟁

가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에 한 번 지지자들이 포함됐다고 믿는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미국인이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주 개스토니아의 반정부 극단주의자 2명은 그런 말에 자극 받아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폭탄을 제조하려 했다. 월터 유진 리터럴이 주도자였다. 몇 주가 지나면서 계엄

‘241 계획’이 밝혀졌다. 민병대원 1명이 사망하면 주정부 관리 2명을 살해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엔 우익 극단주의 음모가 있었다.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건물과 발전소를 폭파하려는 계획이었다. 같은 해 마찬가지로 민중의 봉기를 노리고 유타 주 트레몬턴 경찰서를 폭파하고 경찰관을 암살하려는 계획도 발각됐다.

조지아 주 민병대 음모도 있었다. 반정부 급진주의자들이 공무원을 살해하고 독극물 리신을 제조해 워싱턴 DC에 살포할 계획이었다. FBI가 협조적인 증인의 도움으로 감청한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수 개월 동안 가장 효과적인 독극물을 제조하고 살포하는 방법,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주모자 프레드릭 토머스는 모든 수단이 먹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검증된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티머시 매케이처럼 건물 전체를



음모론 부추겨 상하원 장악한 공화당에 ‘상대적 박탈감’

“거짓말, 배신했다” 공화당이 되레 극우 분노의 표적돼

불쾌했다. 두 신문 모두 터무니 없는 소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다가 3월 26일 우익 성향인 폭스 뉴스 방송의 앵커 메건 켈리가 처음으로 그 문제를 전국 뉴스로 다루며 “미군은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말하지만 비판자는 군이 현대판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 때쯤 테네시 주의 반정부 극단주의자 로버트 도거트는 텍사스 주의 민병대 동조자 한 명과 통화했다. 그들은 ‘이슬람버그’로 불리는 뉴욕 주 해록 부근의 무슬림 거주지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의논했다. 그들은 텍사스 주와 어쩌면 유타 주에서도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며, 그런 사태 발전이 자신들의 공격 계획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도거트는 “텍사스 주의 사태를 지켜보며 정보를 입수하겠다”고 말했다. “텍사스와 유타 주에서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그때 공격해야 한다. 그러면 연방정부의 허를 찌를 수 있다.”

반정부 극단주의자 로버트 도거트가 뉴욕 주 해록 부근의 무슬림 거주지를 공격하려다가

새를 채고 며칠 전부터 그의 진화를 감청했다.

도거트는 4월 10일 체포됐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공격 계획과 미군 훈련 음모론이 연관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정치인은 다시 계엄을 시작했다. 어쩌면 오바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는지 모른다는 뜻을 던지 시시했다.

4월 28일 그릭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주방위군에 헌법적인 권리와 시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군 훈련을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주)은 며칠 뒤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실제 훈련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도 그는 “현 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의혹이 생긴다”며, “시민 다수가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루이 고머트 공화당 하원 의원은 한술 더 떴다. 그는 “현 정부 지도부

령 선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극단주의 온라인 포럼에서 무성했다. 당국은 리터럴이 소총 탄환, 무전기, 군용 헬멧, 방탄복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3의 인물도 가담해 파이프 폭탄 제조를 돕기로 했다. 그러나 공격을 실행되지 않았다. 리터럴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FBI에 신고해 8월 3일 3명 전부 체포됐다. 또 다시 미국에 운이 따른 것이다.

맥베이의 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러 같은 규모의 공격은 그 이후로 없었다. 그렇다고 시도도 없었던 건 아니다. 2011년

날려버리겠다.”

그러나 우익 극단주의의 준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공화당을 분열시킬지 모른다.

통계를 보면 우익 극단주의자의 폭력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상원이나 하원 중 적어도 하나를 장악할 때 증가한다. 웨스트포인트가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그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인 듯하다. 보수파가 의회를 지배하는 가운데 극우 세력의 높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런 박탈감이 나타난다는 분석이었다.

(5면으로 계속)



시론

나를 짊어시는 하나님!



은희곤 목사
(참사학교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짊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가다가 기근이 일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로 인해 자기를 환대해주었던 애굽은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왕 바로가 빨리 깨달아 아브라함에게 사리를 내주고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스타일 팩 구기는 장면입니다.

이후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의 재물이 너무 많아져서 우물을 두고 목동들끼리 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각자의 길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어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장대케 되리라. 축복하리라”(창 12장-13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시점을 주목합니다. 성경은 그 시점을 이렇게 전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창13:14) 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시 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물 사비 사건을 통하여 롯이 떠나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뤄졌습니다.

“짊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축복도, 나의 자녀들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도 온전한 순종에서 출발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부분적 순종”일 때는 애굽이라는 땅신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적어도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때가 나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입니다. 그 시점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짊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빼앗아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은 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인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기가 한 것이 있어 절대 절명의 위기임을 직감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식솔들과 가족들을 2떼로 나누어 먼저 보낸 후, 야곱은 압박강가를 건너기 전 생사를 건 철야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잡니다.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자 “나로 가게 하라”고 청합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참 황당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네 이름이 무엇이나?”를 들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떠 올립니다.

성경의 첫 모자 사기단인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장자인 에서에게서 장자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계락을 꾸밉니다. 야곱은 만아들 에서의 의복을 입고 염소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 별미를 갖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때 야곱은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만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상히 여긴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만져 보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참 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창27장). 그 이후 야곱은 에서를 피해 출렁랑을 잡니다. 그 이후 야곱의 신분은 도망자였고 이런 그의 마음을 짙게 짙은 것은 형 에서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기 전에 야곱의 이 부분을 짊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야곱이니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축복하십니다(창32장). 그가 사기친 “나는 에서로소이다”를 “나는 야곱이로소이다”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짊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를 짊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끄집어내 토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나의 십자가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짊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이루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나?”를 물을 때요, 그때가 바로 내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축복받을 때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출발하는 때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나를 짊어시는 하나님” 앞에서 토설과 회개, 그리고 부분적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인생 안에서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 시간들이 되시기를 중보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pastor.eun@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이미지의 쓰나미” 절제해야

(1면에서 계속)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단번에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골1:15)라고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사는 이미지의 가치를 분명히 확인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 인식되는 것과 말씀을 통해 인식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이미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알파오 오메가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1분 아니 몇 초도 되지 않아서 우리는 또 다른 이미지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V, 번쩍이는 광고판, 잡지 등등에서 보게 된다.

물론 이미지들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 왔다. 실제로, 이미지는 책을 읽을 수 없는 이들을 가르치고 선도하는 도구로 사용돼왔다. 교회 변화와 성당을 장식하는 많은 미술 작품들(스테인드글라스)은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엘릴이 1965년에, “그러한 이미지는 점점 더 누

군가의 우주가 되어버리고, 이미지들의 증가는 현상의 본성을 계속 변형시켜오고 있다”고 지적했듯이(The Humiliation of Word), 이미지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변해, 성경에서 금하는 경배의 영역으로까지 올라서게 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미지 폭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미지는 자신의 권리 회복을 넘어 이 시대의 지배적인 매체로 등장하면서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우려하고 고발하는 목소리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영상 매체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텔레비전과 인터넷 같은 매체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는 한계에 처해 있다.

이미지의 제작은 허용하되 그에 대한 경배는 금하는 좋은 예가 바로 낫뱀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들에게 물려 죽게 되자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민 21:8)고 명령하셨다. 이에 모세가 낫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낫뱀을 쳐다보고 살았다. 예수는 이 낫뱀을

당신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사용하기까지 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3:14-15).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낫뱀을 우상화하여 섬겼을 때, 구체적으로 말해서 낫뱀을 향해 분향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어 버렸다(왕하18:4).

결론으로, 하나님은 이미지 역시 은총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그러나 이미지만을 고집하게 되면, 수동적이 되어 창의적인 사고 활동이 저해를 받게 되고, 더욱 이미지에 노출되면 사고가 멈추게 된다.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범람하고 있는 포르노그래픽 이미지들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처럼, 이미지가 어디에나 편재하고 있는 세상에서 포르노나 폭력을 부추기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살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게 되었다.

사순절을 맞아,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상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한다. 바로 내가 무의식중이라도 클릭 한번으로 이미지를 보는 사소한 잘못들을 포함한 모든 죄들을 씻기시는 은혜의 중만함이 있기 때문이다.

인들이 중국이나 이슬람 근본주의를 미국에 대한 큰 위협으로 여기는 반면, 젊은 미국인들은 기후 변화를 더 큰 문제로 생각한다.

어떤 시대나 개혁을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이들의 요구가 언제나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정자들은 그와 같은 움직임을 두려워한다. 천안문 광장의 시위를 탱크로 진압했던 중국 정부가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 아프리카인들에게 로버트 무가베나 폴 비야와 같은 늙은 독재자들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젊은이들은 언젠가 온

원로칼럼



박준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상)

뒤늦게 철이 들어서일까? 목회를 내려놓고 난 지금, 깨달음도 많고 후회도 크다. 이런 일은 이렇게 했다라면, 저런 일은 저렇게 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솟곤 한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랫말이 떠오른다. 목회도 완성 없다. 지나고 나면 만감이 오가고 떠오르는 게 많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은 필자의 반성문이기도 하고 회고의 글이기도 하다.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낫뱀목회

필자의 경우 겁 없이 담비고 설칠 때가 있었다. 그리고 한껏 꿈에 부풀어 높낮이도 구별 못하고 전후좌우도 돌보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아댔다. 내가 제일이고 내 목회가 최상의 모형이고 내가 해야 된다는 오만으로 들떠 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것은 비전과 오만은 동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호위 받고 박수 받는 황제 목회가 부럽고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오겠지’라는 망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꿈을 버리고 비전도 포기한 채 비굴한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소신은 목사의 자존심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 없이 굽실거리고 쫓대 없이 알량대는 것이 가치 없다.

포장된 겸손은 겉꾸밈에 불과하다. 차라리 솔직한 교만만도 못하다. 자신의 부정적하고 은폐된 삶을 굴절된 겸손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오래 못간다. 사실과 실제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이 그렇지 표리가 같고 언행이 일치된 자기 낮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남는 후회가 크고 많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세족사건을 한 점 성화로 취급하기 쉽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주변을 의식하셨을까? 입소문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기대하셨을까? 아니다. 그 일은 순수 그대로였고 섬김의 표본이었다.

손양원 목사는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데 아직도 내 안에 황제 취향의 잔재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 다시 목회를 한다면 나를 낮추고 섬기고 베풀고 싶다. 양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다.

무릎 목회

머리를 굴리고 행정의 묘를 살리고 대인관계에 성공하고 기발한 설교와 접근법으로 교인을 감동시키면 성공 목회라고 생각

했다. 그래서 그쪽에 정열을 투자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런 내 목회자 하나님의 목회는 아니다.

은퇴한 아무개 목사님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준비한 선물을 당회원들에게 주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세해가 되면 세배도 했다고 한다. 처음엔 ‘황궁무지보소이다’라던 그들이 그 일이 반복되자 시큰둥해졌고 결국 반기를 들어 목회자 배척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목회 대상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다루고 접근하고 장악하려는 것은 금기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무겁게 다가온다. 바쁘다는 핑계, 일한다는 구실, 피곤하다,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소홀히 했다. 하루 서너 시간을 기도했다는 앞선 이들의 기도담을 들을 때마다 ‘아,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 목회가 바로 되지’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과 의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착상과 접근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 후에 만나 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로 영성 충전 후 해야 한다. 회의보다, 세미나보다, 여행보다 더 큰 것은 목회이고, 목회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오래 전 출판사와 잡지사 운영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 시간 페너라, 매달 잡지 만들라, 원고수집, 원고로 지불, 출판비, 광고 간 채우기..... 하루하루 시달리다 보면 헤어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빠져 불면증으로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필자는 그에게 “머리로 생각하기 전 무릎을 꿇으라”고 조언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도말을 재정비했다고 한다.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대신 사무실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1년 후 사육을 마친후 운영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회사뿐이겠는가? 하나님의 목회라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한숨짓고 양말 부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두리번거리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목회 마침표를 찍게 된 내 꼴이 부끄럽고 한심스럽다.

“목사님, 바쁘십니다.” 왜 바쁘는가? 무엇 때문에 바쁘는가? 나만 그 답을 알고 있다. iamcspark@hanmail.net

“밀레니엄 세대가 어른 돼도 세상은 변함없다”

(1면에서 계속)

실제로 이들이 세상을 이끌어갈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신세대의 냉소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장 중국만 보아도 공산당에 가입하겠다는 학생이 80%지만, 그 이유가 체제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4%뿐이라는 통계가 있다. 반면,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환경친화적인 세상이 될 거라는 희망적인 기대도 있다. 분명한 것은 밀레니얼이 사회를 이끌어

인종차별적인 성향도 덜하다. 특히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에 비해 타인종에게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는 자의식은 여러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에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탓에 때로는 무고한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래도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시절보다는 과도하게 예민한 편이 낫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밀레니얼들이 나이를 먹으면

인종차별적인 성향도 덜하다. 특히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에 비해 타인종에게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는 자의식은 여러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에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탓에 때로는 무고한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래도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시절보다는 과도하게 예민한 편이 낫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어떤 시대나 개혁을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이들의 요구가 언제나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정자들은 그와 같은 움직임을 두려워한다. 천안문 광장의 시위를 탱크로 진압했던 중국 정부가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 아프리카인들에게 로버트 무가베나 폴 비야와 같은 늙은 독재자들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젊은이들은 언젠가 온

사회적으로 보다 진보적...동성애, 인종차별, 군사력 비판적 빠른 변화에 잘 적응, 부정부패 줄어들고 환경 친화적 세상

가게 되면, 세상이 분명 사회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곳이 될 거라는 점이다.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젊은이들은 동성애에 대해 부모 세대 보다 훨씬 열린 시각을 갖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덜 종교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를 실생활에서 더 자주 접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동성애에 대한 논란은 끝난지 오래고, 개발도상국에서조차 무계주는 기울어가는 추세다. 한 세대 전만해도 동성결혼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던 브라질과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밀레니얼들이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에 비해

보수화될 가능성은 있는가? 승진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서 경제 정책 면에서 보수성을 띠게 될 수는 있지만, 사회적 진보성이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교외로 이사 가서 큰 집과 차를 사고 아이를 갖게 되더라도, 갑자기 피부색이나 성격이 다른 친구를 배척하게 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세대는 나이든 사람보다 군사력 사용에 비판적이다. 자신들이 징집 대상이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가 영토 분쟁 지역 군대 파견에 찬성할 가능성은 전 세대에 비해 낮아졌다. 나이든 미국

라인 청원에 서명하는 것이 투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의 부모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서야 투표장에 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직접 투표장에 가서 유권자의 권리가 가진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밀레니얼들이 투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밀레니얼들은 더욱 오랫동안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발전한 의료 기술 덕분에 밀레니얼은 그 어떤 세대보다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게 됐기 때문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0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0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제40회 총회를 소집 공고하오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예약 일정과 등록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총회일시: **주후 2016년 5월 17일(화) - 5월 20일(금)** (3박 4일)
2. 총회장소: **Crowne Plaza Hotel** (www.crowneplaza.com/cherryhill) 2349 Marlton Pike West, Cherry Hill, NJ 08002 (Tel:856-665-6666)
3. 숙박비: 총회 기간의 숙박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미화(USDollar)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5일까지)	2차(3월 15일까지)	3차(4월 15일까지)
2인1실(1인당)	\$ 390	\$ 435	\$ 475
1인1실	\$ 710	\$ 750	\$ 790
부부	\$ 770	\$ 850	\$ 930
원로/공로 목사(2인 1실)	\$ 350	\$ 390	\$ 430
(부부)	\$ 690	\$ 740	\$ 790

* 현지 선교사와 영어 노회원에 대해서는 2인 1실에 한해서 50% 할인함.

- 1) 개인 숙박 :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셔야 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식비 \$200을 납부하거나 식권을 구입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 2)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실 분은 미리 알려 주십시오.

4. 등록 및 송금 안내 : 등록 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혹은 money order로 보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payable to) : KAPC-PHILA
 * 주소 : Rev. Hee Kwon Jeong (정희권 목사)
 204 Lincoln Drive West Ambler, PA 19002
 (215) 407-3898 (Cell)

5. 교통안내: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다수의 차량을 배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해 도착 공항과 도착 시간 및 항공편을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장소가 필라델피아 인근에 있는 관계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께서는 필라델피아 국제공항(PHL)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접수: 첫날(5월 17일 화)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 식사는 오후 6시부터, 그리고 교회 예배는 오후 8시에 드립니다. (1) 등록 마감일(4월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호텔 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7. 기타: (1) 영어 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 통역 시설이 준비됩니다. (2)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준비 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호텔 : 이재철 목사 (215) 833-8070, hopeljc@gmail.com
 - 관광 : 이병은 목사 (215) 852-1723, hope2c@hotmail.com
 - 기타 : 최해근 목사 (267) 471-7777, hankschoi@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영수 목사 서기 조웅철 목사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전동진 목사 서기 최해근 목사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롱 다리 인생

한국 사람들은 큰 키를 선호합니다.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의 키에 따라 롱 다리(long leg), 혹은 숏 다리(short leg)라는 표현을 씁니다. 롱 다리와 숏 다리를 구

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잘 모르지만 만일 '키 높이 깔창'을 사용하는 사람을 숏 다리라고 한다면 저는 숏 다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별로 대단한 롱 다리

도 아닌 제가 일상생활에서 키 때문에 종종 불편을 겪습니다. 좁은 자동차 뒷좌석, 식당의 양반 다리 좌석, 비행기 일반 좌석들은 다리를 펴지 못해 불편합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다가 낮은 천정에 머리를 팽 부딪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한(?) 키의 제 아내는 아마 이런 제 고충에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남아로 단기선교를 갔을 때의 경험입니다. 현지 선교사님을 따라 버스로 이동하는데 버스 좌석 공간이 현지인들의 키 기준에 맞추었는지 유난히 낮았습니다. 게다가 도로에는 움푹 파인 구멍(pot hole, 포트 홀)이 정말 많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다리를 펴지 못하여 다리는 부었고, 버스가 팻 홀 위로 지나갈 때

마다 머리는 천장에 부딪히고, 어김없이 말미는 찾아와 속이 안 좋고... 이래저래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선교관에 돌아와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좁은 차 안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좁은 마음은 견디기가 어렵다. 좁은 차 안에서는 다리를 마음껏 펴지 못해도 마음만큼은 어디서나 편하게 펼 수 있어야 한다. 길에 난 구멍이 마음에 구멍이 난 것보다 낫다.'

인디언 속담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같이 있는데 둘은 늘 싸운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The heart of the human problem is the problem of the human heart). 구멍 난 마음, 좁은 마음,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 환경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외모나 말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편안한 장소가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만족할만한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만한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일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푸 / 른 / 초 / 장

박은일 목사
(시애틀평강장로교회)



"탕자의 비유"는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두 명의 탕자가 나온다는 것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그리고 큰 아들이 나옵니다.

가 돼지 먹는 쥐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주는 자가 없었더라(16).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둘째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라도 먹으려는 유혹도 받았으나 그것도 주지 않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15:1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엘돈' he came to his senses(niv) 이 뜻은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제 정신이 아니었으나, 이제 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내가

그렇게 문을 활짝 열고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아들이 생각을 하고 난 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을 연습하며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회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행동의 변화임

돼지우리 속의 쥐엄 열매를 다루는 자로 바닥을 칠 때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쾌락과 행복만을 위해 살았던 둘째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그 자식을 죽었다가 다시 산자라고 선언을 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처럼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는 이미 벌을 받아 죽었다'고

아셨습니다. 타국은 죄를 의미한다면, 벌은 일을 의미합니다. 돌아오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 한 종을 불러 물어보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합니다. 큰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기처럼 성실한 사람에게도 한 번도 베풀어주지 않은 잔치를 그 둘에 맞아 죽어도 쓴 자에게 먼저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노예와 같이 섬겼거니와'라고 말한 것은 아들로 섬긴 것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말한다. "당신의 아들... 이름으로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고 경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에 그토록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을 좇아 열심히 살았던 큰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기쁘신데 큰 아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왜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느냐는 것이지요. 둘째아들은 죄의 노예, 첫째는 의의 노예였습니다. 둘째아들은 욕망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고, 충성한 아들은 그의 의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아버지에게 아픈 것이 아니라, 그의 '의'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가? 맏아들입니다. (8면으로 계속)

두 탕자와 아버지 (눅15:12, 1132)

1.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몫을 요구하였습니다. 11절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의 행동에 놀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분명히 배은망덕한 행위이고 후례자식들이 할 법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말은 "아버지, 어서 돌아가세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그들을 놀라게 한 사실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은 당시 유대 근동지방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지위나 그의 업을 헐어버리는 일과 같은 '모욕적인 일'입니다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가서...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13)' 돈이 떨어지고, 친구가 떨어져지고,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다 없어진 후 '그 나라 백성중 하나가 저를 돼지를 치게 하였더니(15) 저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이 둘째아들의 상황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당연한 일이지. 그는 충분히 그럴 만해'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젊은이를 정죄합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기위해 돼지를 치는 것도 짜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아켜" eis eauto eldon Came to himself(rsv) '에이스 헤아우텐 데

누구였는데, 내가 왜 이 여기서 이런 꼴을 당해야만 하는가? 내가 왜 쥐엄열매를 먹을 때까지 바닥을 치고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성도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찾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스스로 돌아켜"라는 eis eauto eldon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젊은이가 생각을 시작한 것은 다른 소용들을 막아버리고 아버지와 집 생각만 했을 때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쓸데없는 소문을 듣기 위해서

니다.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울면서 돌아가는 자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2.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본 아버지는 뒤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의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눈을 깜박이는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지고 같은 삶에 불과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느라 아버지는 아들의 쾌락함을 허락하신 것이고, 아들의 이방나라 행을 허락하신 것이며, 아들이

선언을 해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살려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지신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는 자식이 동네에 들어서자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아시고 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연습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서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 없어...더 이상 나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빨리 돌려주어라..." 3. 맏아들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절정이 바로 25:32절입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타국에 있다가 돌

아왔습니다. 타국은 죄를 의미한다면, 벌은 일을 의미합니다. 돌아오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 한 종을 불러 물어보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합니다. 큰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기처럼 성실한 사람에게도 한 번도 베풀어주지 않은 잔치를 그 둘에 맞아 죽어도 쓴 자에게 먼저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노예와 같이 섬겼거니와'라고 말한 것은 아들로 섬긴 것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말한다. "당신의 아들... 이름으로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고 경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에 그토록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을 좇아 열심히 살았던 큰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기쁘신데 큰 아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왜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느냐는 것이지요. 둘째아들은 죄의 노예, 첫째는 의의 노예였습니다. 둘째아들은 욕망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고, 충성한 아들은 그의 의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아버지에게 아픈 것이 아니라, 그의 '의'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가? 맏아들입니다. (8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l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 (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책임, 거룩한 선거투표” : 기독교유권자 정보안내서(상)

미국 대통령 코카스(Caucus)와 예비 선거(Primary Election)가 시작됐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언덕 위의 도시”로 세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던,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는 이 미국이 지금은 사거리에 와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의 길에 서 있는 것이지요(신30:15-20).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한민

국교도 시민들의 5가지 책임: 1. 기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뽐하도록 기도하기 2. 유권자 등록하기-평생에 한번만 하거나 주를 바꿨을 때 다시 하기(https://vote.usa.gov/) 3. 공부하기-대선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우기 4.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정보를 나누고 투표하도록 격려하기 5. 투표하기-투표권을 기권하는

정/폐지 4. 국가 보안 강화: 늘어나고 있는 미국인의 ISIS 테러, 무슬림 시민/난민으로 가장한 ISIS 테러사건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정책 긴급!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슬람 단체인 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CAIR)이 무슬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즈, 플로리다, 텍사스, 버지니아 주(state)에 사는 2천

다음은 3월에 있는 대통령 코카스와 예비 선거 일정입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기도가 절실합니다. △3월 1일: 앨라배마, 알래스카(R), 알칸사스, 콜로라도, 조지아,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노스다코다(R),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와이오밍(R). △3월 5일: 캔자스, 캔터기(R), 루이지애나, 메인(R), 네브라스카(D). △3월 6일: 메인(D)

미국내 무슬림 73%가 올 대선 투표의사 밝혀: 1위 클린턴, 2위 샌더스, 3위 트럼프 하이슈: 동성결혼합법화 폐지 · 낙태법안 수정 · 기독교신앙자유 회복 · 국가안보강화

죽을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까? 지금은 개인적인 이득이나 소수민족 이득만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자들답게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도록 믿음의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때입니다. 꼭 투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성경적 가치관”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혀야 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영적 전쟁 중 국가의 “생사”가 달렸기 때문이고 다음 세대들의 “생사”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CCC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말하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어떤 성경적 가치관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까? 미국전역에 있는 교역자들뿐 아니라 교육자, 기업자, 기독교 리더들이 아래와 같은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대통령 후보자만을 “우리는 지지하겠다”라고 수만명이 서명한 리스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1. 결혼의 정의 회복: 동성결혼 합법화 폐지 2. 생명의 존엄성 회복: Roe vs Wade 낙태 법안 수정 3. 기독교 신앙의 자유 회복: 기독교인들만 역차별 받고, 불이익 당하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법안들 수

명의 무슬림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번 대선에 투표할 계획인지 그리고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는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무슬림들 73%가 이번 대통령선거에 꼭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 순서는 1위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52% 2위 버니 샌더스(민주당) 22% 3위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7.5%. 민주당은 민주당 플랫폼(정치정당)에 2012년부터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낙태를 어떤 형태에서든 지지한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는 100% 동성결혼 합법화와 어떤 형태의 낙태든 다 적극 지지합니다.

△3월 8일: 하와이(R), 아이다호(R), 미시간, 미시시피 △3월 12일: 워싱턴DC(R). △3월 15일: 플로리다, 일리노이즈,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3월 22일: 애리조나, 아이다호(D), 유다. △3월 26일: 알래스카(D), 하와이(D), 워싱턴(D) 이번 주에 더 자세히 2016 대통령 선거 기독교 유권자료를 완성해 Tvnext.org에 올려놓으니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 144,000, 666 등 숫자들이 나오고 용, 여자,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짐승, 음녀, 바벨론 등의 단어들 나오는데 요한 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팔로스버디스 김형남

A: 좋은 질문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하나님의교회의 안상홍, 신천지의 이만희는 계시록 12장 5절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바로 자기 자신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는 12장의 해석단서에 의하면 그는 해를 입고 그 발아래 달이 있고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 여자는 야곱의 12아들 구약의 12지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총신의 성경해석학을 가르쳤던 권성수 목사는 예수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시다(시29, 사66:7)라고 해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이단들 뿐 아니라 정통그리스도인들의 토론장이 되기도 합니다. 권성수 목사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1) 계시록은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다각적인 반복진행의 기록이다. 때문에 계시록은 반복진행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2) 계시록은 그 장르가 묵시(Apocalypse)다(계1:1). 묵시는 수많은 상징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으로 멸하시고 교회에 구원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

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는 문학 장르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묵시 장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의 상징은 일차적으로 계시록 자체의 단서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성경전체의 빛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5장의 어린양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나옵니다. 어린양은 창49:9, 사11:1, 10절의 빛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양(Lamb)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승리자 사자(Lion)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양, 사자 예수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으로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으로 다스리시되 마침내 세상을 멸하시고 교회에 구원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의 14,400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은 유대인 구원자의 총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14장의 어린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의 택한 백성의 대표인 12지파와 신약의 택한 백성의 대표인 12사도도 대표되는 수에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1000)를 곱하였을 때의 수입니다. 계12장의 붉은 용은 12장 9절의 해석이 말해주는 대로 옛뱀 곧 마귀입니다. 계시록 13장의 666은 그 짐승 즉 바다짐승으로 붉은 용 마귀에게서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힘과 종교통합의 힘을 받아 그 권력을 휘두르며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666으로 한 것은 완전수인 7에 못 미치면서 그리스도를 흉내 낸다는 뜻입니다. 예수그리스도로 말하자면 777로 상징될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는 666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계13장의 거짓 선지자는 새끼 양으로 표현되었는데 마치 어린양 예수님과 비슷하게 흉내 내지만 그 입에서는 용처럼 마귀의 말을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의 계시가 본 계시입니다.


(2면에서 계속)

민주당이 우세할 땐 그들은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권을 잡은 공화당이 극단주의 명분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은 방법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뿐이라는 얘기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쯤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게 분명하다. 생각해보라. 공화당 정치인은 지지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탄핵을 수없이 거론하며 오바마가 무슬림이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2012년 리비아 벤가지의 미국 영사관 피습사건과 관련해 뭔가 숨기려고 오바마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계속 주장했다. 무엇보다 공화당은 2009년 스스로 자신을 위협한 급진파와 동일시

했다. 무심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토안보부는 폭력적인 우익 극단주의자가 미국에 최대의 테러 위협을 제기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이래 사태를 보면 정확한 분석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그 보고서를 이용해 또 다른 음모론을 부추겼다. 오바마 행정부가 보수파를 테러 위협으로 여긴다는 주장이었다. 그 보고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이번 전쟁의 임박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로 받아들였다. 또 내용을 잘 아는 급진주의자는 공화당 주류가 ‘보수파’와 ‘폭력적 우익 극단주의자’가 같은 뜻이라고 인정했다고 받아들였다. 의회 청문회가 잇따랐다. 겁에 질린 관리들은 우익 극단주의 분석을 담당한 국토안보부 부서를 폐지했다. 그들에 관한 지식이 절실한 시점에서 얼마나 큰 손

실인가? 공화당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음모론을 계속 부추겼다. 그 결과 2010년엔 하원, 2012년엔 상원을, 2014년엔 양원을 다 장악했다. 그러면서 우익 극단주의자는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됐는가? 살인자이고 헌법을 능멸하는 독재자이며 불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기꾼인 오바마 대통령은 왜 체포되지 않는가?’ 그들에겐 두 가지 가능한 해답뿐이었다. 공화당이 거짓말을 했거나 공화당 정치인이 의회를 장악하자마자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폭력적 민병대를 포함한 극우 세력은 공화당에 반기를 들었다. 지금 공화당 주류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내팽개쳐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인기를 독차지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트럼프

후보는 ‘변절환’ 정치인을 맹렬히 공격하며 급진주의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백인 우월주의 온라인 포럼 스톱트럼프에는 좀더 전통적인 공화당 후보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칭찬과 지지가 넘쳐난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에 관한 모든 음모론에 신빙성을 부여함으로써 위험한 게임을 벌였다.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부추긴 우익 분노의 표적이 됐다. 그들은 평화롭든 폭력적이든 급진주의자의 부상을 이끈 장본인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공화당의 분열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익 극단주의자는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계속 꾸민다.



구약 출간예정

신약 신간

고영민 번역 주석 | 박종규(월간목회) 기획 2,106면
이형규(쿰란출판사) 발행 값 59,000원

히브리어 · 헬라이어

원문 주석 성경 (신약)

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번역 · 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히브리어·헬라이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계를 삼위일체적으로 강해
-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 6. 구약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인용
-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www.qum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6 Tel. 02-747-1004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방글라데시의 네팔인(Nepalese)



1950년대에 네팔이 민족국가로 건국될 때 많은 네팔인들이 네팔(Nepal)로부터 도주해 국가의 많은 강요사항들을 피하고 그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자 북인도 여러 지역 및 이웃 나라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에 정착했다.

한때 거대한 인도왕조의 일부였지만 방글라데시는 1947년에 독립

국가로 분리(동파키스탄을 의미, 역사적)되었으며 국민들은 가난하고 단순한 삶을 산다. 과도한 인구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 나라의 공식 언어는 벵골어(Bengali)이지만 네팔인들은 네팔어의 한 형태인 카스(Khas), 쿠라(Kura)를 사용한다.

다른 힌두교인들처럼 네팔인들도 "카스트(caste)" 구조에 속해 있다. 이 카스트에는 단 두 개의 종류 즉 상류층 지주와 하층 하인들만이 존재한다. 비록 그들은 항상 농부처럼 일하지만 근래에 들어 자녀를 인구 많은 시골을 떠나 도시에서 더 안정된 직업을 찾아가고

록 격려하기 시작했다.

삶의 모습

방글라데시에 있는 대부분의 네팔인은 농부로, 강과 샘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거주한다. 마을들은 드문드문 있는 집들과 이를 둘러싼 경작지로 구성된다. 가장 가난한 가정만 땅을 갖고 있지 않다. 습식 벼(wet rice)가 문순계절에 재배되고 건식 벼(dry rice), 옥수수, 기장(millet)과 밀이 여름철에 건조한 땅이나 겨울철에 재배된다. 네팔인들은 또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채소밭을 경작한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버팔로와 염소를 육류를 위해 그리고 소는 우유를 위해 기른다.

많은 네팔인들은 현재 도시로 이주했으며 대부분의 도시 거주민들은 매우 열악한 위생조건으로 현대적 편의시설 없이 다 쓰러진

집에서 산다. 이들은 상인으로서 지역 상업에 종사하거나 정부 공무원으로 일한다.

네팔인 어린이들은 세 살이 될 때까지 모유를 먹이곤 한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첫 밥 먹이기, 첫 머리 자르기 등과 같은 많은 통과 의례를 갖고 있다. 여자 아이들은 사춘기 의식(puberty rites)을 거치며 남자 아이들은 "신성한 실의식(sacred thread ceremony)"이라고 알려진 입문식을 거친다. 대략 8살이 되면, 아이들은 집안 허드렛일을 하기 시작한다. 여자아이들은 더 어린 동생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길어온다. 남자 아이들은 보통 가족들을 지킨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집에서 많은 일을 한다. 이들은 땅을 갈고 심고 뿌리며 곡물을 수확한다. 그들은 곡물을 건조시키고, 분류하며,

탈곡을 한다. 남성의 주요 책임은 쟁기질, 베란다 수리, 그리고 농작물에 물대기를 하는 것이다. 가끔 그들은 여성들의 밭일을 돕는다. 종교적인 축제일 혹은 마을의 행사기간에 네팔인들은 밝게 채색된 옷을 입고 큼직한 은 코걸이, 귀걸이를 하며 머리에 화려한 스킨카프를 두른다.

신앙

방글라데시에 있는 모든 네팔인은 실질적으로 수많은 신을 섬기는 힌두교인들이다. 그들은 교차로나 강에 출몰하는 유령과 악마의 존재를 믿는다. 그들은 귀신, 유령, 악마, 요정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며 정기적으로 그들을 달래기 위해 제물을 바친다.

힌두교인들은 3억이 넘는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초자연적인 것들도 숭배되지만

신들과 여신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힌두교는 신격(deity)이 분리된 형태로 나타나며 각 형태들은 브라만(Brahman)이라 불리는 하나의 우주적인 영의 일부라고 믿는다. 가장 중요한 신격은 우주의 창조자인 "브라마(Brahma)", 수호자인 "비슈누(Vishnu)", 파괴자인 "시바(Shiva)"이다. 힌두교 사상에서 사람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브라만의 일부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네팔인은 거짓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의 선교단체가 그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단 6명의 네팔인만이 주님께 그들의 삶을 드렸다. 기도는 이 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나가는 중요한 열쇠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밀레니얼 세대, 미 경선판 뒤흔들여

올해 미국 대선 경선 초반이 지나면서 198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경선판을 뒤 흔들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경선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정치 참여가 승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면서 양당 모두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사설에서 젊은 층의 투표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투표가 지금까지 양당 경선에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낳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젊은 층(18-29세)은 올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해 1946-1965년 태생의 베이비붐 세대와 유권자 규모에서 처음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유권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젊은 층의 투표율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양당 경선에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선거 캠프가 활동했던 2008년 수준과 견줄 만한 정도로 높다. 최근 끝난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이들의 투표율은 2008년과 2012년을 뛰어넘었다.

앞서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첫 두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젊은 세대의 영향력이 입증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1위를 차지했지만 연립별 분포를 보면 유일하게 청년층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다.

청년층의 부각으로 가장 혜택을 본 후보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다. 샌더스는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경선에 이어 네바다 코커스(당원대회)에도 80%가 넘는 청년층의 지지를 얻었다.

샌더스가 네바다 코커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5.5%포인트 차이로 지긴 했지만 젊은 층의 지지도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지지율 면에서 샌더스는 클린턴에 20%포인트가 넘게 밀렸다.

NYT는 "18세에서 29세 유권자의 샌더스 지지율은 6개월 만에 1%에서 41%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젊은 층이 정치나 사업 경험보다 진실성과 분별력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가 젊은 세대에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버드 정치학 연구회의 델라 볼프는 "젊은 세대는 단지 투표하는 것 이상의 참여를 원한다"며 "캠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후 처음으로 샌더스가 다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인종적으로 더 다양하고 진보적이라는 점은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다. 공화당 지지층이 전통적으로 백인, 기독교인, 기혼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밀레니얼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하버드 정치학 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한 비율은 56%로 공화당(36%)보다 20%포인트 많았다. NYT는 "젊은 층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양당의 선거 캠프들도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사 빠진 NASA, '예수님' 단어 사용 규제

1968년 12월 21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3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아폴로 8호를 발사했다. 우주선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에 달 뒷



면으로 다가가는데 성공했고 3명의 우주비행사는 달

뒷면에 접근한 인류 최초의 인간이 됐다. 아폴로 8호의 달착륙선 조종사 윌리엄 앤더스와 승무원들은 달 뒷면의 계도를 돌면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는지 창세기 1장 1절-10절을 돌아가면서 낭독했는데 이 순간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무신론자 머레이 오헤어가 아폴로 8호 우주비행사들이 달 계도 탐사 도중 창세기 1장을 읽을 수 있도록 NASA가 허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NASA가 승소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NASA 존슨우주센터가 최근 기독교 직원들의 종교적 발언과 '예수님'이라는 단어 사용을 규제하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존슨우주센터는 2015년부터 기독교 임직원들이 읽는 뉴스레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독교 법률단체의 제레미 디스 수석 변호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NASA는 우주 비행사가 달 계도 탐사 중에 성경의 창조에 관한 부분을 읽어 제기된 소송에서 그를 지지하는 등 직원들의 종교적 발언을 오랫동안 존중해왔다. 그 전통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종교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이번 일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레미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존슨우주센터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서에서 이들은 "존슨우주센터는 연방법과 헌법 수정 제1조를 침해하는 종교자유 침해 행위를 가했다. 이 클럽의 뉴스레터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교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과 같은 주장은 수차례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 대해 NASA는 아직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독교 종교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빈번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체포당하기도 한다.

또한 플로리다주의 한 기독교 사립 고등학교가 미식축구 경기 전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려는가 하면 자신의 운영하는 병원에서 CCM을 틀었다는 이유로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과 기독교 문화권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다.

어쩌면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이라 주장하는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적 법률 적용을 통해 역사적 박해를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 아내 임금영 사모 애절한 편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둠의 땅이지만 빛의 역할을 하도록, 그 땅의 영혼을 품고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되도록..."



1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61세) 목사를 그리워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임금영 사모의 애절한 편지가 공개됐다. 임 사모는 '사랑하는 큰빛교우님들께 오랜만에 멀리서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최근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임 목사 억류 이후 심정과 감사·기도제목, 교인들에 대한 애절한 사랑 등을 표현했다.

임 사모는 "임 목사가 억류되고 1주일이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을 북한에 보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면서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 평평 소리 내 얼마동안 울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내려주시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목사가 종신노역형이라는 죄명을 받았을 때 '주님이 또 살려 주셨네요'라며 분명 임 목사의 사명이 있겠다고 감사기도를 드렸다"면서 "그 땅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 '말야'가 있어 야 하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라는 생각에 또 한번 쉼

이 감사하고 있다"며 고난 중 감사제목을 나눴다.

임 사모는 "큰빛교회 교우들이 추운데 고생하면서 캐나다 (국외)사당이 있는) 오타와를 찾아가 기도했다는 말에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면서 "기도 참석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교우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만나면 울 것 같고 자신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으니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어둠의 땅이지만 임 목사가 빛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변장된 축복을 잘 감당하고 외롭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했다.

큰빛교회 성도 300여명과 캐나다 동노회 소속 목회자, 교회협의회 목회자 50여명은 지난 17일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한 '임현수 목사의 날' 기도회를 개최했으며, 로나 엠브로스 보수당 대표, 캐나다 외교부 관계자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노회총 큰빛교회 목사도 이 기적 토론토 한인회장 등은 대북특사 파견, 가족 연락채널 구축 등을 요청했다.

노 목사는 교회 주보에 "기도회 날짜를 17일로 정한 것은 하루 전날이 임 목사님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리운 임 목사님이 지난해 60번째 생일과 61번째 생일을 북한에서 보내고 있다. 하나님의 큰 위와 은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은 불났지만 성경은 온전... "기적 같은 일"

테네시 주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에 갇힌 채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다른 운전자들이 그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관들이 도착해 진화에 나서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하지만 다 타버린 차량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다. 모두 불에 타버려야 할 차량인데도 운전자는 차량 안에서 성경이 멀쩡하게 발견됐다. 테네시 주 펠프스의 지역 방송국(WMC Action News 5)에서 촬영하고 보도한 영상에는 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21일 테네시 주의 385번 고속도로를 달리다 다른 차량과 옆 부분이 충돌한 뒤 언덕 아래로 미끄러졌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다 표지판 기둥과 부딪힌 차량에서 실상가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목격자인 아니타 어비(Anita Irby)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변에 있던 다른 운전자들이 달려가 사고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연 뒤 운전자를 구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렇지만 한동안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불이 번지는데도 소화기를 찾지 못해 초기 진화를 하지 못했고, 운전자의 가슴이 차량 핸들에 눌러 있어 운전자를 차 밖으로 빼내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어비는 "심지어 차량이 폭발하는 듯 한 소리까지 들렸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화상을 입지 않았다"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전했다. 차량 바깥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곧 도착한 앰블런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더 큰 기적은 이후에 나타났다. 사고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좌석에 있던 성경을 발견한 것이다. 성경은 약간의 습기를 머금은 듯 보였지만 차량이 빠져나갈 때만 전소됐음에도 온전한 상태였다.

목격자인 유진 맥네일(Eugene Mcneil)은 지역 언론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That is God)"며 "당신이 믿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내가 본 것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사고 상황을 전했던 어비도 "하나님이 385번 고속도로에 계셨다"며 "누군가 그가 계셨기 때문에 운전자가 살아남았다고 외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M Pastor 청빙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KAPC) is looking for EM Pastor 주사랑장로교회 (KAPC) 에서 영어목사(파트타임)를 청빙합니다.

POSITION: Part-Time Position

QUALIFICATIONS:

Graduate of or currently enrolled in a reformed seminary
Fluent in English (Korean language ability is also preferred)

APPLICATION DOCUMENTS

Resume with Picture
Personal Testimony & Philosophy of Ministry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Two Sermon Files

자격조건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분
영어로 능통한 분 (한국어 의사소통도 가능한 분을 선호함)

제출서류

이력서 (사진 포함), 개인간증과 목회철학
추천서 2통, 설교파일 2개

Please, send all the documents to Pastor John Jung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Attn: Pastor John Jung / 209-08 48th Ave. Bayside, NY 11364

주사랑장로교회 (KAPC)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리더십 코멘터리 (11)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The True Measure of Leadership

Leadership is Influence

세상 많은 곳에서 리더십이란 말을 쓴다. 최근 이슈를 끌고 있는 미국대선에서의 후보들의 리더십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에서의 리더십, 회사와 학교는 물론, 가정과 친구 관계까지도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같은 단어를 말하면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상당히 복잡해질 때가 있다.

리더십이란 말처럼 분야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각자 생각하는 정의가 모두 다른 경우도 드물 것이다. 리더십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의가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정의 밑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영향력(influence)이라고 할 수 있다. 영향력이 없다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십은 단순히 맨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의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진정한 리더십의 척도는 영향력이다. 리더십에서 지위(Position)의 높고 낮음은 큰 의미가 없다. 학벌이나 학력, 지식 역시 마찬가지다. 조직 내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 리더는 아니다. 비록 현재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리더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리더의

자리에 있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 어떤 자리에 위치하든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지명되거나 위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리더의 자리를 특정 지위와 동일하게 생

을 미치느냐에 따라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부터 각 상위직급으로 진급할 때마다 리더십을 교육시킨다. 그들에게 조직을 이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Good Followership

팔로워십(Followership)이란 영향력의 관점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아무런 잘하는 것을 팔로워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팔로워십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흔히 리더십을 카리스마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조직 구성원 전체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리더십의 형태 중 하나이고, 또 중대한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될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요소(factors)들

1. 성품Character: 진정한 리더십은 내적 성품에서 출발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는 영적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의 내면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2. 관계Relationships: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인간관계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리더십의 잠재력은 커진다. 적절한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충분히 형성하면 조직에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3. 정보Knowledge: 리더에게 정보는 필수다. 리더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다른 요소를 파악하며 타이밍을 알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이 없다면 리더가 될 수 없다.
4. 직관Intuition: 리더가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료 파악 이상의 구성원내의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구성원들은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 승리를 이뤄낼 능력이 있는가를 알고 리더의 말을 따르고 그를 신뢰하게 된다.

영향력이 큰 리더일수록 많은 것을 이룬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때 참된 리더십의 본질을 직면하게 되었다.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그의 직위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자신의 지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리더는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다시 핸들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리더로서의 무능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다시금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여호수아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더 좋은 리더가 되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 아울러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하고 소신이 되는 모세로부터 가능한 많은 것을 배웠다.

영향력이 큰 리더일수록 많은 것을 이룬다. 여호수아처럼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올바른 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가?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모세와의 관계 때문에 성장했다. 당신의 모세가 되는 스승을 발견했는가? 당신의 가정을 우선 시하기 위해 지금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영향력에 법칙에 따라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신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즉시 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를 찾으신다. 리더로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만을 계획하는 것은 불쌍한 일이다.

sondongwon@gmail.com

리더의 리더십이 리더 수준과 조직체의 잠재적 성장 결정 동역자를 라이벌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격 갖춰야

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영향력의 방향은 사람들이 아닌 그 자리에 대한 임명권자에게로 향하게 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면 우리는 그 윗사람에 대해 "리더십이 좋다" 혹은 "리더십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면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영향력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 상하 관계 뿐 아니라, 동료나 가족관계에서도 얼마나 좋은 영향

왜곡되어 주변의 입을 강력하게 틀어막고 전권을 휘두르는 것을 리더십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리더의 생각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주장할 경우 이를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보거나, 리더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리더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어떤 자리(position)에 오르기를 꿈꾸기보다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라. 리더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뜻대로 할 수 있

할기, 의욕, 타이밍, 추진력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파악할 줄 아는 직관력이 있어야 한다.

5. 경험Experience: 리더로서 과거에 경험한 것들이 많을수록 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줄 가능성도 커진다.
6. 과거성과Past Success: 리더의 과거 뛰어난 성과와 성공은 구성원들에게 큰 신뢰를 준다. 새로운 조직으로 몸을 옮기고 변화를 추진하고 성공 할 때마다 구성원들에게 내말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어 가는 것이다.
7. 능력Ability: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할 수 있는 능력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23)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언합감교회 담임)



시온의 대로는 탄탄대로가 아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시84:5).

"시온의 대로"는 시온, 즉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말한다. 성전은 어디에서나 '올라가야' 한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800미터에 자리잡고 있다. 어디에서 오든 예루살렘에 가려면 '올라가야' 한다.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하는 곳이다.

올라가지 않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다.

시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시들이 있다(시120-134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들이다. 저 멀리 산꼭대기에 성전이 있다. 그곳까지 가야 할 다. 험한 산들과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격정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시121:1). 그러나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121:2).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시편 84편의 시인도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시84:6). 험한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무사히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격을 맛보게 된다.

대로는 하이웨이다. 편한 길이다. 안전한 길이다. 돌지 않고 바로 가는 길이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길이다. 장애물이 없는 길이다. 그러나 시온의 대로는 결코 그런 길이 아니다. 험하다. 위험하다. 힘든 길이다. 좁은 길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사망의 골짜기도 통과해야 한다. 산 넘어 산이다. 결코 8차선 고속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우고 예배를 드릴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험하고 힘든 길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알 것 같기도 한데, 말씀달총하다. 시온의 대로는 성전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길이 마음속에 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크게 나 있다는 것이다. 시온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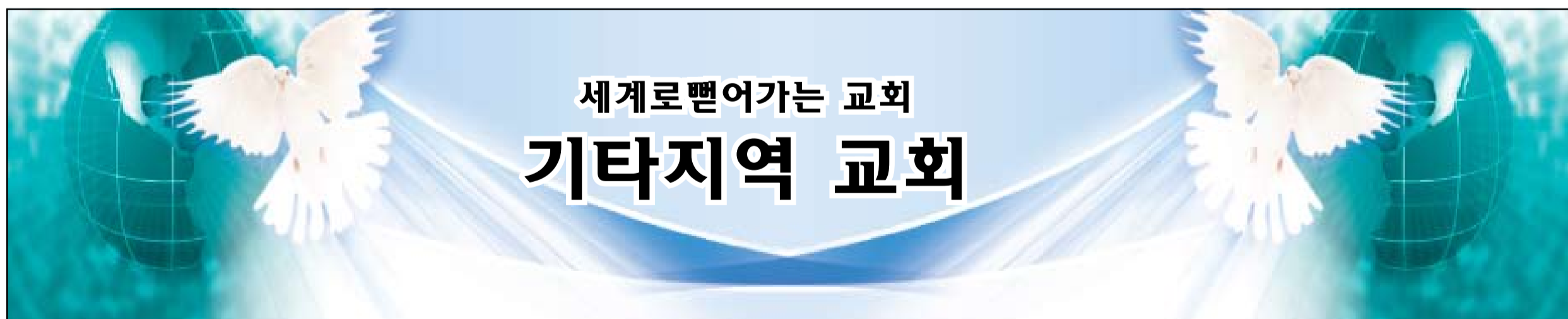
마음은 늘 성전에 가 있다. 늘 성전을 그리워하며 산다. 그러나 성전은 너무 멀리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밖에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 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성전에 올라가려면 아직도 몇 달이 남았는데, 벌써 마음은 순례길에 올라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고 가슴이 벅찬 것이다.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시84:5, 새번역).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소풍가기 전날, 또는 운동회 전날, 비가 오면 어쩌나 가슴 졸이면서 자다가 몇 번씩이나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곤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던가? 토요일이면 잠을 설친다는 분이 있다.

(10면으로 계속)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VDKoreanChurch.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전 8:00(화-토) 매일사백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후 9:00 수요성서학당: 오후 8:00 Tel. (410)461-1235, Fax. (410)461-8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행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아, 영년, 유년예배: 오전 11:15 유치, 유년, 주일: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대학행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Aurora, WA 98125 www.mpcow.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ijhs.org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델린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817)542-0288, Fax. (817)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542-9037,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nmci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하트포트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3.1절 투고칼럼

최학량 목사

(민주평통LA협의회 종교분과위원장)



“3.1정신으로 평화통일을”

3.1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다. 기독교 정신이 바로 3.1정신인 애국정신, 자유정신, 독립정신, 희생정신이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미년(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야말로 세계를 들뜨게 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믿는 기독교 인사들의 주장이 독립선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내 백성을 보내라”(출5:1, Let my people go) 모세의 출애굽 명령 수행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었다.

인간의 생존권과 평등주의 정신이 독립선언서에 나타난다. 적국 일본을 미워하지 않았다. 온갖 고문, 난폭, 비인간적인 만행을 “원수사랑”이란 말솜에 따르면서 독립만을 부르짖었다. 순수한 양심선언, 전 인류의 공생권에 정당한 선언이 성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했다. 일본 위정자들이 불합리한 사고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응답

했다. 옥고를 치렀다.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다. 순교의 제물이 됐다. 피흘림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조국은 자유와 해방을 얻어냈다.

그날 이후 97년이 흘렀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수많은 고난과 전쟁, 혁명, 폭동, 시위, 잘 살아 보고자 몸부림쳤다. 세계가 주목하는 신양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대국으로 일어섰다. 선진국대열에 성큼 진입했다. 선교, 스포츠, 연예계, 전자, 문화의 한류는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우리는 우주최첨단의 과학문명의 시대에서 시야를 넓히자.

일제강점시대는 조국독립해방이 과제였다. 지금은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 평화통일이 과제이다. 3.1운동의 성공기도에 있었다.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오직 기도뿐이다. 우주적인 안목으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바로 통일이 과제다. 8천만의 행복,

평화통일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다. 흑백논리에서 탈피하자.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격론에서 해방되자. 우리의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 직시하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왕조는 분명히 사탄의 조종으로 공포만 제공했다. 적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공의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사탄을 이기는 길은 핵무기, 전략전술, 외교정책, 국제적인 제재 등 이런 것들이 아니다. 언제나 역사의 한 복판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 기도 뿐이다. 기도로 승부를 걸자. 진정한 자유를 갈구하자. 사탄의 세력으로 부터 해방된다.

절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 한말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자. 4.13 총선에 사리사욕에 혈안이 된 것들은 국회에 입성치 못하도록 기도하자. 모든 교회가 재를 무릎

쓰고 통곡과 회개의 기도가 들끓게 하자. 3.1정신은 바로 지금 절실히 요구된다. 하나님의 긴급 명령이다.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 북으로 후진선이 사라진다. 8천만의 행복 평화통일이 눈앞에 보인다.

남북한의 군사비용은 산업과 사회 모든 분야에 쏟아 붓는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온다. 북한의 7천조원의 막대한 지하자원이 남한의 기술력과 남북한의 인력으로 세계를 경악케 한다.

오 주여! 97년 전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정신으로 무장했던 3.1정신을 주유소서.

조국의 8천만 내 동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믿고 진정한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라 우리가 만세” 아멘.

hrc0110@hanmail.net

푸 / 른 / 초 / 장

(4면에서 계속)

의인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고 죄인들 세리들은 누구인가? 둘째아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아버지보다는 자기중심으로 산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 하나는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 2) 다른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는 사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꼭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아들은 성을 뱉니다. 왜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들같이 집을 나갔다가 깨닫고 돌아온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아니면 순종하는 것에 짜증내고, 무시하고, 난 저 사람보다 더 착한데, 왜 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가?

라는 불만이 가득한 만아들이 많을까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버리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세상에 두 부류, 죄인으로 생각하는 죄인과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집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자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은 모두 탕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비유는 미안성으로 끝내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자기희생의 사랑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Prodigal son 웹스터 사전에 극도로 ‘남비하는’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남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만 돌아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쏟아 버렸습니

다. 무엇을요? 사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내용을 Prodigal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서 남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호수에 비유한다면 그 호수 중에서 가장 맑은 호수, 밑에까지 볼 수 있는, 바닥이 흰회 보이는 호수가 녹15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주시며 부정한 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가랴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비유적 예언처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슥3:4, 5)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옷”(사61:10)으로 입히시고 의의 겹옷으로 입히실 때, 우리는 마치 양우리에 누운 그 날개들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이(시68:13)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silveronepak@yahoo.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워킹대디’ 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비법

한 기업의 아빠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스스로 몇 점짜리 아빠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평균 67점이 나왔다. 아마 바쁜 업무 때문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데 자녀들과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67점’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싶다.

67점짜리 아빠들

많은 아빠들은 실제로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출연하는 TV 예능프로그램을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 TV속 아빠들처럼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제적 부양능력은 물론 자녀들과 자주 외식도 하고 영화관에도 갈 수 있어야 비로소 ‘100점짜리 아빠’로 인정을 받는 시대이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도 문제인 것이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아빠들이 적지 않다. 지금의 젊은 아빠들의 경우 이전세대로부터 ‘부성(Fatherhood)’을 배우지 못한 세대이다. 부성이란 곧 ‘아버지로서의 친밀함’이다. 즉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의 특성을 말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아버지의 친밀함 곧 부성을 많이 경험할수록 아빠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도 부성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버지로부터 친밀감을 누린 자녀들은 좋은 성품을 형성하고 나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갈 바탕이 구축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부성은 아버지들이 반드시 배우고 표현해야 할 성품인 셈이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40여년에 걸친 추적연구를 통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부성을 표출할수록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자국의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매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자녀들은 무려 87%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결국 아버지와 친밀감 정도에 따라 자아존제감과 대인관계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부성이 자녀의 좋은 성품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아버지와 친밀감이 좋은 성품형성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자녀들에게 표현함으로써 자녀들의 좋은 성품을 형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영숙, 2005)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성을 표현하고자 하면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와 눈을 마주하며 웃어주는 일부터 실천하면 된다. 하루 10분 자녀에게 보약을 먹이듯 좋은 성품을 심어주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다음 3가지를 실천해보자.

첫째, 매일 10분 ‘해피타임’을 꾸준히 실천하자. 자주 자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틈나는 대로 아이에게 좋은 성품의 말을 전한다. 점심시간에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또는 식사 후 잠깐 커피를 마실 때 좋은 성품의 말을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좋다.

둘째, 자녀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자. 자녀의 존재 자체에서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양 만족할 수 있는 게 부모들이다.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매일 업무에 치여 사느라 잊어버릴 때가 많다. 가능하면 자주 그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주자.

셋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들을 개발해보자.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아빠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런 아이들은 공감인지 능력도 높아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안다. 호주 뉴캐슬 연구진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신체를 접촉하며 놀이를 할 때 신체 발달뿐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는 좋은 성품이 길러진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퇴근 후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즐거움을 주거나 양치질이나 잠자리 준비 등 습관적인 생활에서도 게임처럼 함께 해줄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부성 체험이 없다. 또 이것이 훌륭한 유산이 되어서 자녀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도록 해 준다.

내 자녀에게는 내가 느낀 부성의 부채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라면 오늘 당장 아빠의 친밀감을 애타게 바라는 자녀들에게 짧은 10분이라도 행복을 느끼게 해 주자. ‘해피타임 10분’으로 아빠의 웃음소리를 선물하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자. 그렇게 ‘워킹대디’로 살아가는 아빠가 만들어준 10분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결실을 가져다줄 것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6.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3(Fri)-16(Mon) 2016
2) Place: Philadelphia USA

3.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Malachi 4:1-6
(2) NT Exegesis Text - 1 Corinthians 2:1-5
(3) Thesis Topic - What is the Biblical view on homosexuality? Elaborate the Church's response on this issue.
(4) Sermon Text - NT: Romans 1:18-32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Jameshur63@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YunJoonHur-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US).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6.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0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7-20).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3-16 2016 Philadelphia) through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Yun Joon Hur / Address:
Cell : (718)637-1470 E-mail : Jameshur63@Hot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Hyun-in Kim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Dae Up Kim (339)223-2763 (Daenaree@yahoo.com)

OC교협·민주평통 공동주최 3.1절 기념예배 개최

평화통일 염원기도회...오후2시 은혜한인교회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OC교협, 회장 민승기 목사)와 OC, SD 민주평통(회장 권석대)가 공동 주최하는 3.1절 기념예배가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드플레이어 센터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10시30분 효사랑 선교교회(회장 김영찬 목사)에서 열렸다.



OC교협과 OCSD평통이 공동주최하는 삼일절 연합 기념예배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권석대 민주평통 회장은 “올해 예배는 3.1절 평화통일 염원기도회로 열리게 된다. 교협과 평통이 함께 주최한 기도회는 이번에 세 번째”라 언급하며 “삼일절은 우리민족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역사중 하나다. 이 역사적인 날, 교계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협과 함께 했다. 특별히 삼일절 행사는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다. 작년에는 라스베가스과 OC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삼일절의 정신은 독립정신이다. 그 정신이 통일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특별히 남북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교계가 한뜻으로 삼일운동의 정신까지

고 나아가며,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도회를 주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승기 OC교협회장은 “이곳이 해외이다 보니 삼일절의 뜨거운 열기가 한국에 비해 덜한 것 같다”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뜨거운 열기가 시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년 삼일절 예배는 오전 OC 한인회관에서 삼일절 기념식을 가진 후 오후에 열리게 된다. OCSD

평통은 오는 4월 23일 통일염원 골든벨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OC교협은 3월 7일부터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경통독을 위한 기적의 3일'이라는 주제로 성경통독 세미나를 연다. 강사는 주혜홍 목사(에스라성경통독 사역원 대표, 90일 성경일독 통론통독 저자).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협회가 주최한 2016 부활절 교사세미나가 본협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예배찬양, 뮤지컬, 크레프트, 성경암송 소개 어린이전도협회 2016 부활절 교사세미나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2016 부활절 교사 세미나를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어린이전도협회 사무실에서 가졌다.

(박준호 기자)

다. 이날 세미나는 부활절 예배찬양과 미니 뮤지컬 배우기, 크레프트와 액티비티, 성경공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윽고 전도사는 “성경암송을 가르치는 단계는 도입, 제시, 설명, 적용, 반복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며, “도입은 요절과 관련된 질문이나 인형이나 예화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게 되며, 제시는 성경에서 직접 읽으며 시각자료를 제시해 성경장절을 가르친다. 그리고 설명은 새롭고 어려운 단어와 뜻을 설명해주는 것이며, 성구를 어린이들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요절을 암송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담임목사 취임식에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김문수 목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나성제일교회 김문수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나성제일교회 김문수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21일 오후 4시 이 성우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 본부장)의 사회로 은혜가운데 진행됐다.

성재성 장로의 성경봉독과 할렐루야 혼성 중창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단에 선 민경엽 목사(나침반교

회 담임)는 ‘교회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사60:1-13)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취임하는 목사와 본 교회 성도들의 서약이 있는 후 김문수 목사가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음이 선포됐다.

김문수 목사는 담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주님의 은혜 외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가운데 세워주셨으니 그분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면은 백창호 목사(오렌지힐교회)가 맡았으며 민경엽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나성제일교회)



뉴욕교협증경회장단과 교협 임원단이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한준희 목사, 박진하 목사, 이종명 목사, 안창희 목사, 신현택 목사, 김홍석 목사.

“1년간 수고 기억...교계의 롤모델 되자”

뉴욕교협증경회장단, 기독교언론 초청 오찬

뉴욕교협증경회장단 새 회장에 선임된 안창희 목사(26대 교협회장)가 교협 임원단과 뉴욕의 기독교언론들을 초청, 오찬을 나눴다.

안창희 목사는 “역대 41명의 교협회장들이 1년간 수고하며 사역

해온 것을 기억해주고 증경회장단은 교계의 롤모델이 되기 바란다”며, “증경회장단이 서로 친교와 신뢰를 통해 뉴욕교계에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교계와 교협을 위해 기도하고 간섭이 아닌 자문에 대한 조언을 하겠다”며, 분기별로 임원단과 언론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각 언론 기자들의 여러 질문이 오가는 가운데 “뉴욕 교회들의 분쟁은 일단 노회의 문제이므로 교협이 관여할 수 없고 서로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날 증경회장단의 정치적 권력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으나, 주로 일반적인 대화가 오갔다.

(유원정 기자)



아주사퍼시픽신학교 개강예배 및 신입생 환영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아시안 프로그램 2016년 봄학기 개강예배 및 신입생환영회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아시안 프로그램(디렉터 변명해 박사)은 2016년 봄학기 개강예배 및 신입생 환영회를 16일 오후 5시에 개최

했다.

임준근 학우의 찬양으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진형 학우가 기도를 권영수 학우가 특송을 했다.

이어 보고 동문인 조현철 목사(오렌지힐장로교회, 주강함 선교회 대표)가 사사기 16:28-32를 본문으로 설교했다.

조현철 목사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피 파워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였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임을 소홀히 하게 돼 결국 무너지게 됐다. 결국 눈을 잃어버리고 머리가 잘려 힘을 잃어버리는 등 비참함을 맛보게 됐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삼손은 비록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았으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되어 그가 무너지기 전보다 더 큰일을 행하게 됐다”고 말하며, “머리가 잘린 삼손, 그러나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게 됐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게 될지라도 소망을 붙들다면 소망가운데 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 말했다.

이날 예배는 조명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에 이어 신입생 환영의 시간을 가졌으며 식사와 교제 시간으로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여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GGU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찬리더십박사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응용 통한 학점 취득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로부터 목사인수 (남,여)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필수 있다.
 3). 본교는 미국 미주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입니다.
 4). 대학학 학점 최대한 인정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 info@goggu.us

DYNAMICS 다이내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국대입제**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총신 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 교육국 BPPE CODE 94874 (e)(1)인준학교

총장 이동규 박사
 chongshinuts@gmail.com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213)386-0300
 (213)422-8916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심과 회복이 있는 기도 공간.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목사회 임실행위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제 1차 임실행위위원회 및 조국을 위한 기도회가 3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타교회(담임 오상연 목사, (208-01 43rd Ave. Bayside)에서 열린다.

▲문의: (914)393-1450

EM 사역자 청빙

뉴욕에 있는 주사랑장로교회(KAPC교단)가 파트타임 EM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개혁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으로 한국어 가능자를 환영한다. 서류는 이력서(사진 첨부), 개인 간증서 및 목회철학서, 추천서 2통, 설교과필 2개. 서류는 교회주소(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Attn: Pastor John Jung, 209-08 48 Ave, Bayside, NY 11365)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8)229-8855

아이티 고아원 단기선교팀 모집

아이티 고아원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헬핑핸즈미션네트워크(Helping Hands Mission Network, 대표 조항석 목사)가 7월 단기선교팀을 모집한다. 일시는 7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5박6일, 장소는 아이티 포토프린스 인근 10개 고아원. 숙소는 포토프린스 피시픽 미션센터(소나파)다. 참가인원은 16명(어른, 학생 포함)이며 신청 마감은 3월 31일. 참가비는 항공료 700달러 포함 1,150달러. 학생참가자의 경우 약기를 다루는 학생을 우선으로 하며 참가 신청서(첨부 양식), 지난 학년 및 현재 학년 성적증명서, 학교 교사 또는 출석교회 목사님 추천서, 에세이(제목: 세상을 바꾸는 일, 한 영 중 택일). 모든 참가자는 3월 31일 이전에 참가신청서와 참가 신청비 150달러를 보내야 한다.

▲문의: chohenry02@gmail.com

씨존 스마트폰 강좌 중고급반 개설

씨존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54기)과 중급반(53기)중고급반(55기)이 뉴욕기독교방송국(163-07 Depot Rd. #B-2 Flushing) 세미나실에서 개강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뉴욕기독교방송 사장). △초급반은 3월 10-24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20분부터 3시50분 △중급반은 3월 5-19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 △중고급반은 3월 7-21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3시50분까지. 강의내용은 호텔예약, 비행기 예약, 식당 예약, 은행 계좌 이용, 페이스북 하기, PC에서 카톡하기, 사진자료 PC로 이동하기, 설정 둘러보기 등이다. 컴퓨터를 지참할 수 있다. 신규 개설하는 중고급반은 중급반 수료자 또는 선교사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폰) 위주로 강의하지만 아이폰 소지자도 들을 수 있다. 초,중급, 중고급반 모두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문의: 347-538-1587

제1회 찬양인도자 발굴 프로젝트

러브뉴저지에서 기타교실을 오픈한다. 3월 5일부터 5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2주에 걸쳐 열린다. 장소는 네이버플러스(256 Broad Ave 2F1 Palisades Park). 약간의 수강료가 있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Jiwoos@gmail.com

3.1절 기념주일에배시 통일염원 기도부탁

뉴욕교협, 평통뉴욕협의회 요청 받아 회원교회 이메일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은 2월 28일 주일에배를 3.1절 기념에 배와 아울러 통일을 위한 기도부탁 드리기를 회원교회들에게 당부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회장 정재건)는 뉴욕 교회들이

28일 주일에 "조국 대한민국 통일 염원"이라는 주제로 예배드리기를 요청했다. 민주통일 뉴욕협의회는 뉴욕일원 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며 통일을 염원하는 열기

가 뉴욕으로부터 확산돼 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고취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일염원의 날

(유원정 기자)



뉴욕청소년센터 2016년 첫 이사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청소년센터 2016년 첫 이사회

최호섭 목사 등 새 이사 5명 영입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 첫 이사회가 지난 15일 오전 8시 플라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새 이사로 뉴욕영락교회 최호섭 목사, 어린양개혁장로교회 유승래 목사와 그레이스리프 목사와, 그리고 평신도로 뉴욕소망성결교회 장로 천일웅 변호사가 영입됐다. 또한 그동안 청소년센터를 돕던 하크네서야교회 정인섭 전도사도 이

번에 이사로 참여하게 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대표 황영송 목사, 이사장 이상호 집사, 서기 이지용 목사, 장경혜 목사, 대표를 역임한 한재홍 목사와 최창섭 목사, 그리고 이사장을 역임한 이수일 박사 등이 참석했다. 또 교협 임원들도 참석해 청소년센터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청소년센터)

뉴욕장로연합회 제 36차 목요기도회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가 지난 18일 오전 8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제 36차 목요기도회 및 제 29차 목양장로사역 뉴욕 컨퍼런스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로) △조국과 미국의 신앙회복을 위하여(남태현 장로) △분회의 활성화를 위하여(정권식 장로)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박우신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예배는 황규복 장로 인도로 최원호 장로의 기도예로 이어 박우신 목사(프라미스교회)가 설교했다. 박 목사는 출애굽기 39장 32-43절을 본문으로 "섬김의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특별 기도는 △목양장로사역 세미나를 위하여(김영호 장

이날 프라미스교회는 조찬과 함께 1, 2월 생일을 맞은 회원 3명을 위해 축하케익 커팅도 했다. 한편 목양장로사역 뉴욕 컨퍼런스는 5월 3일(화)과 4일(수),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최홍준 목사(부산 호산교회 원로) 등을 강사로 개최된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퀸즈장로교회 42주년기념 음악회 및 장학금수여식 차세대 인재양성...총 20명에 수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2월 28일 설립 42주년에 앞서 21일 저녁 4시 기념음악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음악회는 스미안비의 오보에(피아노 임지은) 연주로 '가브리엘의 오보에'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하나님의 은혜' △소프라노 강혜영(피아노 김정운)의 Lascia ch'io pianga,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하코은의 바이올린(피아노 임지은) 연주로 '사랑의 기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공연됐다.

김성국 목사는 "차세대 인재양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장학금"이라며, "오늘을 잊지 말라. 온 교회가 기대하고 있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김 목사는 "모든 순서가 기도로 준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장학금을 후원한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더 풍성하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생 대표 김현지 양(빙햄튼대 학교 재학)은 "믿음의 기반을 갖게 해준 퀸즈장로교회에 감사한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글로리아아시어즈가 '알렐루야', '은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를 합창한 후 김성국 목사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이어서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부위원장 박정봉 집사가 장학금 수여에 따른 심사기준(봉사활동과 시상 내역, 학교성적, 교회출석 참여도, 에세이 등) 및 절차를 설명하고 중고등부 10명, 대학 대학원부 10명 등 총 20명에게 수여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 36차 목요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7면에서 계속)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레어 잠이 안 온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집에서부터 45분 걸려서 교회 오

는 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 오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한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자다가 깨어서 보니 새벽 3시 있다고 한다. 다시 잠자리에 들면 새벽기도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아

예 잠을 자기 앓았다고 한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면 허전하다는 분이 있다. 주일 하루만 큰 하루 중일 교회에 있고 싶은 것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온의 대로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대로 좁고 험한 길이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는 성공에 이

르는 길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다. 성공을 행해서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다. 자녀들 앞에 성공의 대로가 열리기만 기도했다, 그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 대신 세상으로 향하는 8차선 고속도로가 뱅 뱅 뚫려 있지 않은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jinhlee1004@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in NY, NJ, and Hawaii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예년의 3분지1...2,453포, 담요100장

제7차 사랑의 쌀 나눔 1차 결산보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수석부회장 김재울 목사)가 주관하는 제7차 사랑의 쌀 나눔 1차 결산보고가 LA한인회관 1층 회의실에서 18일 오후 2시에 열렸다.

남가주교협은 이날 결산보고에는 현재까지 후원금 2만2330달러가 모아졌으며 개인과 작은 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에 쌀 2,453포와 담요 100장을 배급했다고 발표했

다. 교협측은 후원금 모금액이 지난해의 약 3분의 1까지 떨어졌는데, 그 원인은 사랑의 쌀 나눔운동을 예년에 비해 늦게 시작한 것과 불경기 등으로 후원금이 줄어든 것이라

고 밝혔다. 교협은 향후 2차와 3차에서 모금·배포될 2,360포의 쌀을 합쳐 올해 총 4,813포의 쌀을 나눠줄 예정이다. 올해 신청된 양은 총 6,616포였지만, 후원금 부족으로 신청자 가운데 일부만 선정됐다. 한편 교협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문의:(323)735-3000 (박준호 기자)



나성동산교회에서 열린 제147차 소망교육세미나에서 UCI 시신기증 디렉터 마크 부룩스가 강사로 나와 시신기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더텐트의 파킹랏콘서트가 '2016하모니'라는 주제로 열렸다

시신 기증 필요성 설명...참여요청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제147차 소망교육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한 제147차 소망교육 세미나가 16일 오전 10시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UCI 시신기증 디렉터 마크 부룩스가 강사로 나와 시신기증에 대한 설명을 했다. 마크 디렉터는 "의료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다. 기증된 시신을 통해 질병치유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신이 없으면 학생들과 과학자들이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한해 동안 190구의 시신이 기증이 되어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며 "시신기증을 통해 진행되는 연구 중에는 각종 암, 치매 등이 있다. 또한 일본에 있는 의학도들도 찾아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신기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서 이병영 홍보대사가 시신기증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최경철 사무총장이 긴급연락처에 대한 상황극을 선보였다. (박준호 기자)

다양한 장르, 수준 높은 무대 장식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2016 하모니'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의 파킹랏 콘서트가 '2016 하모니'라는 주제로 20일 오후 7시 가주영어 학교 파킹랏에 위치한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신동희 목사(남가주 기쁨의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하모니'라는 주제에 걸맞게 클래식과 대중음악, 합창, 가극, 재즈, 그리고 합창까지 다양한 장르가 함께 선보였다.

교수(백석문화대학교)가 찬양곡인 '하늘의 해와 달도'와 대중가요인 '그게 내애요'와 '또 하루가 지나가면', 그리고 애니메이션 OST인 'Let it Go'를 선사했다. 이날 파킹랏 콘서트는 한인 타운 내 건전한 거리공연문화 사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충분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공연을 보러온 주요한 목사는 "텐트의 스태프들과 친분이 있어 모처럼 시간을 내서 와서 공연을 보니 하나의 무대도 빠지지 않는 수준 높은 공연을 보게 되어 뜻밖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마치 고수들의 경연장을 보는 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프라노 김희경, 조현주가 찬양곡을 불렀으며, 클라라김이 'O Mio Babbino Caro', 베이스 제임스리가 '사공의 노래'를 불렀으며 듀엣으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개사한 '2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렀다. 이어 팔라레움 선교합창단이 'The Prayer', 'Swong Low, Sweet Chariot', '도만 부르는 바리톤', 보컬리스트 린지리가 기타리스트 랜디김 교수의 기타 연주에 맞춰 재즈로 편곡된 'Under my skin'과 'Fly to the moon'을 불렀으며, 힙합뮤지션 J. Spark이 하나님을 전하는 가사를 갱스터랩으로 표현했다. 또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라헬

송규식 목사는 "음향시스템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출연자들과 청중들의 모습들을 볼 때 공연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으며 좋은 공연이 꾸준히 열리고 있다는 것이 반갑다"고 말했다. 더텐트의 다음 공연은 오는 4월 23일(토) 오후 7시 마담몰 광장에서 열린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주최한 어쿠스틱워십나잇 콘서트가 이음카페에서 열렸다

새생명비전교회 어쿠스틱 워십 투나잇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어쿠스틱 워십투나잇을 19일 오후 7시 이음카페에서 열었다. 이날 구원화 사모는 "오늘 콘서트는 새생명비전교회 5부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과 함께했다. 귀한 찬양 함께 듣고 예배해서 감사하다. 교회가 아닌 공간에서 하나님을 마

음껏 높여드려서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원화 사모의 진행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본 교회 청년들의 무대로 펼쳐졌으며 강근영 자매가 찬조 출연해 콘서트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보치엘레스티 솔로리스트 제4회 정기공연

남가주지역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보치엘레스티 솔로리스트 보컬 앙상블'의 제4회 정기공연이 21일 오후 7시 LA다운타운에 위치한 폴블스쿨 지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연은 소프라노 독고정화, 글로리아안, 메조소프라노 원순일,

정현주, 테너 양두석, 오위영, 바리톤 장상근 등 보치엘레스티 멤버들의 무대로 진행됐다. 특별히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 두 성악도 제니박, 루비박 학생들의 특별무대로 마련됐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군사랑선교회 기독교인회원들 초청 연합 구국예배
군사랑선교회(CLMM 회장 김희창 목사)가 오는 27일(토) 오전 11시 웨드미선대학교 6층에서 구국기도 예배를 드린다. 군사랑선교회는 남가주에 거하는 기독교인회원들을 초청, 연합해 한반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위해 기도한다. ▶문의: (213)453-4572

커플관계진단 및 상담워크샵
가정사역 단체 '가정을세우는사람들'(금병달·김정진 공동대표)에서는 커플관계진단 워크샵을 열고 건강한 한인가정 만들기 나선다. 커플 관계검사 및 자격증 워크샵을 통해 혼전상담을 위한 가이드가 제공되며, 커플들을 위한 상담 및 지도할 수 있도록 돕고, 수요자들은 지역별 커플관계 진단자로 등록이 되어 커플관계 상담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커플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연결할 수 있다. 세미나는 2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3111 W Orange Ave, Anaheim에서 진행되고 강사로서는 가정세우는 사람들 대표인 금병달 교수 및 금영진 교수가 나서고 있다. www.familykum@gmail.com ▶문의: (714)287-2458

나성영락교회 '봄말씀잔치 2016'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봄말씀잔치 2016' 집회를 3월 4일(금)부터 6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 담임). ▶문의: (323)227-1400

샌퍼난도밸리 한인회 3.1절 행사
샌퍼난도밸리 한인회(회장 이종구)가 주최하는 3.1절 기념행사가 3월 1일(화) 오전 10시30분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818)355-4008

자마주최 토털 리더십 포럼
자마(대표 강순영 목사)가 주최하는 토털 리더십 포럼이 29일(월)부터 3월 2일(수)까지 달라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72)258-0991

드림교회 은퇴 기념 및 장로장립 예배
드림교회(담임 정영희 목사)는 은퇴 기념 및 장로장립 예배를 28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이날 예배는 2명의 장로가 은퇴하고, 7명의 장로의 임직 및 명예장로로 추대된다. ▶문의: (626)793-0880

피아노 반주자 청빙
예은장로교회(담임 객관섭 목사)는 예배 및 찬양대 반주로 섬길 피아노반주자를 청빙한다. ▶문의: (213)458-2505, 745-9997



제4회 보치엘레스티 솔로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폴블스쿨 지퍼홀에서 열렸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Blvd.,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정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복목회: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 오후 6: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2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lidrock@gmail.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후 11:20 영양권(침소-KDC, 침림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org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2부: 오전 11:2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Buena Park, CA 90248 www.dkpc.org	등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녹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Marquez St., #9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침림드림센터) 오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pca.org Tel: (213)381-2225 / Fax: (949)857-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월-토)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ihel@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대학부)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www.ircv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염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침림) 주일 4부예배: 오후 7:00(침림)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토) www.gracemci.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8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ni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종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ai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9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침림)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신학대까지 번진 ‘동성애 옹호’ 대학마다 옹호 모임...감신대 일부 학생 ‘가면 회견’

일반 대학뿐 아니라 신학대에서도 동성애 옹호문화가 번지고 있어 교단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소수자 탄압 장정을 반대하는 감리교 신학생 및 전도사 모임’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감리회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교의 동성애자 탄압 조항 입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지난달 주요 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동성애를 찬성·동조하는 목회자를 징계하는 조항을 삽입한 바 있다.

이들 신학생은 성명에서 “새로 삽입된 장정(징계 조항)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간적 욕망의 산물일 뿐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가치를 모독하는 일”이라면서 “이것은 동성애자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감리교의 동성애자 인권 탄압 조항 입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곁에 살고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죄를 묻는 교만을 거부한다”면서 “편협한 태도가 한국 감리교의 몰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감리교의 인권 탄압 행태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동성애자가 동등한 인격을 존중받고 교회가 혐오를 멈출 때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학생들은 가면을 쓰고

기자회견을 했으며, 학생 67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기감 행정기획실에 접수했다.

동성애 옹호문화 확산은 보수신학을 강조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라고 예외는 아니다. 총신대 동성애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동성애자 인권모임 강충강충’을 만들어 페이스북(SNS)에서 상담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총신대 측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밖에 감신대의 ‘무지개 감신’, 한신대 ‘고발자’, 성공회대 ‘무아지경’, 백석예술대 ‘퀴어’ 등도 학내 동

성애자를 적극 옹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약사 김지연씨는 “한국에선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에이즈가 주로 유행하고 있으며 10·20대 젊은층에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동성애의 죄성과 폐해를 알려야 하는 예비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교단 지도부가 적극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은 “요즘 젊은이들이 감성적이다 보니 인권에 무제한적 자유까지 포함시켜 단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감신대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동성애의 실체를 바르게 가르치도록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정부는 북한의 잔인무도한 도발과 테러행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정부의 노력과 지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전 세계를 전쟁과 파괴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도 국가안보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고 국민 안

위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음을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등 교계 및 시민단체 지도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9일 1000만인 서명운동’ 전국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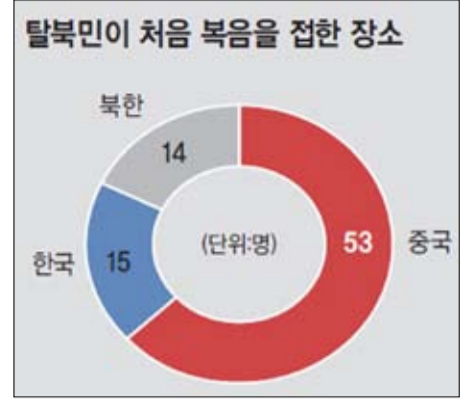
탈북민 10명 중 6명, 중국서 처음 복음 접해 ‘심층인터뷰’ 논문발표...탈북민 상황 따라 3단계 선교전략 제시

탈북민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이 같은 질문에 답하는 논문이 나왔다. 박영(서울 노원구 행복이넘치는교회) 전도사의 서울 감리교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탈북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체계에 관한 연구’다.

박 전도사는 논문을 쓰기 위해 2014년 봄부터 1년여간 탈북민 82명을 만났다. 이들 중 35명을 상대로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논문에는 이들이 생사의 문턱을 넘어 주님을 만나기까지 간증 스토리와 탈북민 선교의 실태가 촘촘하게 담겨 있다.

국경을 넘은 탈북민 중 상당수는 가장 먼저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명이 중국에서 처음 복음을 들은 것으로 집계됐다. 복음을 전한 사람 역시 조선족 한족 등 중국인이 37명으로 가장 많다. 탈북민이 교회에서 받은 첫 인상은 ‘따뜻했다’(16명) ‘나를 도와 주려는 마음을 느꼈다’(9명) ‘사람들이 선해 보였다’(5명) 같은 응답이 줄을 이었다.

응답자 중 65명만을 상대로 진행



한 별도의 설문에서 복음을 접한 뒤 교회를 떠난 적이 있다는 탈북민도 14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성령을 체험하거나 교인들의 인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 65명 중 64명은 하나님을 믿은 뒤 ‘삶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박 전도사는 논문에서 탈북민이 처한 3단계에 따라 상이하면서도 체계적인 선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규정한 3단계는 ①국경을 넘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②제3국 등지에서 교회를 나가며 갈등을 겪을 때 ③성령체험 등을 통해 궁극적인 기독교 진리를 깨달아갈 때 등이다.

탈북민·중국동포, 통일 일꾼 역할 조명 한북협 월례발표회, “북·중 선교사이자 통일 촉매제 될 것”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북협·회장 김병혁 목사)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화평교회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일꾼들로서 탈북·중국 동포들, 연변 조선족들의 역할은?’을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실행위원장 동영진 목사는 “탈북민은 북한 선교사의 사명을 띤 통일 역군”이라며 “북한주민의 의식구조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 목회자의 87%, 평신도의 58%가 북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작은 자들을 선대한 것이 나를 선대한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통일의 역군인 탈북민에게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해성(중국동포교회) 목사는 “중국동포는 중국 국적이지지만 중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숙하다”며 “이들이 북한을 왕래하며 북한과 문화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중국동포가 세계선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 세계 인구 중 약 5분의 1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라며 “중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이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 중국인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선 아직도 외국인의 전도가 금지됐는데 한국에 있는 중국동포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 중국으로 파송한다면 가장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세계선교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허문영 평화한국 대표는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는 한민족이면서 거주국 국민의 이중적 위상을 갖고 있다”며 “거주국에서 사회적 지위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반도 통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민족자원”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남북 주민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동포의 방방과 인적 접촉을 통해 폐쇄적인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넓히고 개혁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진입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교연 “안보 위기, 단합해 극복하자”

교계 및 시민단체 지도자 회견 “북핵 폐기 1000만인 서명운동”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 ‘은 국민이 하나 되어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위기가 고

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안보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은 국민이 단합하고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

복음주의교회 지도자들, 서울서 선교·국제이슈 논의

WEA 세계지도자대회 한국조직위 설명회

세계복음연맹(WEA) 세계지도자대회 한국조직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번 대회를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연합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대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복음 안에서’의 동역’을 주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이영훈 대표회장이 대표대회장, 엄신형 전 총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WEA 국제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가 WEA의 설립배경과 신앙에 대해 소개했다. 김 목사는 “WEA가 설립된 19세기 중반

은 자유주의 신학과 다윈의 진화론, 공산주의가 등장하며 신학·정치·과학 분야에서 정통기독교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일어난 시기였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에 대처하고자 복음주의 교회들은 1846년 WEA를 세웠다”며 “WEA는 성경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다 사실을 믿는 ‘복음주의’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WEA는 미국 뉴욕에 본부가 있으며 현재 129개국 150여개 단체에 6억2000만명이 소속돼 있다. 산하에는 신학, 선교, 청년 여성, 종교자유, IT 관련 상임위원회와 국제인신매

매대책, 리더십, 핵무기 대책, 평화와 화해 관련 특별위원회가 있다. 한기총은 2009년 6월 WEA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WEA 총회는 7·8년에 한 번씩 열리며 세계지도자대회는 매년 개최된다. 한기총은 2014년 10월 WEA 총회를 유치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무산됐다.

세계지도자대회의 취지와 개요에 대해 설명한 이 대표회장은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와 긴급한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미국복음주의협의회(NAE) 등 각국의 복음주의의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들이 세계선교와 교회일치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지도자대회는 27·28일 사전 회의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29일에는 교계·정계·교육계·계 지도자 700여명이 참석하는 개회식 및 환

영만찬이 열린다. 이후 분과별 전략 회의가 열리며 3월 2일 판문점 견학과 3일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4일 폐회 만찬 및 토의 결과 발표 등이 진행된다. 대회 기간 중 매일 열리는 예배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설교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대다수가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인 만큼 이번 대회가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고, 서로를 비난하는 행위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하루빨리 연합을 이뤄 산적한 당면과제에 대처해야 한다”며 “세계지도자대회를 잘 치른 뒤 다가오는 총선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꾼을 세우고 기독교당을 지지하는 등 기독교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동성애와 이슬람의 확산 저지, 역사바로세우기 등에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일제만행 세계에 알린 자료 ‘꺼지지...’ 첫 공개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한국명 석호필·1889~1970) 박사가 한국에 온 지 100년을 맞아 그의 뜻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스코필드박사 내한100주년기념사업회(의장 정운찬)’가 22일 발족했다. 스코필드 박사는 1919년 3·1독립운동과 화성제압리 학살 현장을 해외에 알리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34 번째 민족대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발족식에 앞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족 취지와 주요 사업 등을 소개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3세 때부터 장학금을 지원하며 ‘평생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준’ 스코필드 박사와의 인연으로 의장을 맡았다. 그는 “스코필드 박사는 늘 정직하라고 가르쳤고, ‘약자엔 비둘기 같은 자애로움으로, 강자에게

는 호랑이 같은 엄격함으로’ 대하라며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해 줬다”고 회고했다. 그는 “1916년 세브란스의전 교수로 이 땅에 발을 디딘 스코필드 박사님은 선교와 강의를 통해 사랑과 나눔을 설파했고, 동시에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 독립의 견인차 역할을 하셨다”며 “그의 삶과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이날 스코필드 박사가 일제 강점기 억압받던 한국인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기록했던 원본 자료 일부를 확보,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표적인 자료는 ‘꺼지지 않는 불꽃’ 제15장 전문 22매다. 스코필드 박사가 당시 모진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민족의식을 잃지 않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말로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보

고 작성한 것이다. 타자기로 기록한 전체 298매의 원고에는 3·1운동 당시 시위 행렬의 모습, 일본 경찰에 고문당했던 한국인을 치료한 이야기 등이 담겼다. 그러나 그동안 원본은 물론 사본까지 유실된 상태였다.

기념사업회는 스코필드 박사가 영국의 아동문학출판가 아서 헨리미에게 출간을 당부하며 보낸 친필 편지 등도 공개했다. 이들 자료는 아모레퍼시픽의 후원에 힘입어 영국 수집가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의 원본 전체를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가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것에 발맞춰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

영국 출신의 캐나다인 선교사이자 수의사였던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 당시 일제의 잔혹상을 전 세계에 알리다 1920년 강제 추방당했다. 68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을 수여받은 그는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외국인으로서 유일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제29회 기독교문화대상 시상식 문학·박종규, 평론-안준배, 뮤지컬-박은석, 음악-송정미

기독교문화예술원(총재 김삼환 김용완 목사) 주관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배진기 목사) 주최로 2016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기독교정신을 담아낸 작품과 작가를 선정, 2월 25일 국회회관 정기간 대강당에서 제29회 기독교문화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

수상자와 작품은 기독교적 주제의 의식과 메시지를 담아서 일반적인 공감을 얻은 작품으로서 사회적 관심과 수상자들의 문화공헌도를 중시해 선정됐다.

각 부문의 수상자는 ■문학부문 박종규 목사 ■연극부문 예술평론 안준배 목사 ■뮤지컬부문 박은석 ■음악부문 ‘축복송’ 송정미.

문학부문 수상자 시인 박종규 목사는 시집 “그러므로 사랑은”에서 창조 신앙의 시적 전개를 하였다. 박종규 시인의 작품 속에서 창조신앙의 대제가 되는 인류의 궁극적 주원의 메시지를 시로서 형상화 한 것이다. 박종규 시인의 시 세계는 논리를 초월하는 영적 경험으로서 신앙의 구속사적 이해와 상상력을 구축했다.

연극부문 수상자 연극평론가 안준배목사는 평론집 ‘예술무대, 빛과 어둠’의 연극평론에서 극작가 안톤 체호프가 ‘세 자매’ ‘뽕뽕동산’ ‘갈매기’에서 관객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영리한 주홍글씨의 칠링워스는 우리 시대의 내부 고발이며, 참회의 자백이면서 사랑과 용서를 향한 역설적 외침이다.

음악부문 수상자 송정미는 1991년 발매한 첫 앨범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를 비롯한 5장의 정규 앨범을 백만 장 이상 판매했으며, CCM을 교회음악의 범위를 넘어 대중 속으로 확장했고 세계화에 기여해 기독교문화의 지경을 넓힌 CCM 아티스트 송정미를 음악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독교문화대상은 1983년 제정돼 28회에 걸쳐 국내 최정상 문화예술인을 선정 시상해 기독교문화예술이 심층 확대되는데 기여해 왔다. 수상자에게는 상금300만원과 상장, 메달, 상패가 수여된다.

한기총,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3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성명서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순간적 오판으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가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계 방송3사에 ‘수상소감 자제’ 공문

한국교회언론회 “종교 자유에 시비”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1일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시비를 거는 이상한 종교’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KBS 등 방송3사에 수상소감 자제 압력을 행사한 불교계(국민일보 2월 3일자 25면 참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이는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종

평위)가 연말 각 방송사에 연거푸 연예대상 수상자들이 소감을 말할 때 신앙적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라며 “종평위의 설립목적이 ‘종교간 화합과 상생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고자한다’라는 것인데, 단체 이름인 ‘종교평화’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 이 말을 누가 믿겠

는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이 단체는 수년 전에도 크리스천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기도 세리머니’를 못하도록 하는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며 “이는 스스로 종평위 본연의 자제를 저버린 것으로 ‘종교평화’라기보다 ‘종교갈등’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제라도 종평위는 그 정체성을 지켜 ‘종교간 화합’ ‘사회통합’ ‘국민화합’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성숙한 종교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교의 창 (49)

세계선교를 위한 Business유형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오늘날 세상은 비즈니스(Business)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문화를 통합하고 세계를 하나 되게 하고 있다. 더욱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도시화와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영향력은 전통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접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문화를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비즈니스는 종교와 문화와 종교를 넘어서게 한다. 그러므로 선교완성을 위해 비즈니스는 중요한 사역전략이 아닐 수 없다.

비즈니스가 한인 선교 현장에 공문화 된 것은 1990년대 초 부터이다. 이듬해 전문인 선교, 텐트메이커 선교, 일터선교 등이다. 하지만 당시 선교계에서는 비즈니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것을 세속적 가치로 치부하거나 혹은 선교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4 로잔(Lausanne) 회의를 기점으로 비즈니스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날로 복잡다단해져가는 사역환경에서 비즈니스는 너무나 중요한 선교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인 세계선교에도 후원에 의한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형태의 다양한 선교적 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한민교회는 높아가는 선교의 장벽을 뚫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사역적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세계 선교를 위한 Business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Business for Mission

이 모델은 비즈니스가 선교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선교사 자신이 사업을 통해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고 비자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비율의 경우 바로 이런 특수 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와 로마에서 이 모델을 따랐다.

한국선교 기관 중에는 UBF가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한국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다. 그들은 자비량 전문인 사역을 고집한다. 오로지 선교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사업적 수완이나 기술이 있는 자는 비즈니스를 통한 독자적인 개

척의 길을 모색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회사나 국가 기관의 공무원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형태의 장점은 마치 야생조처럼 선교적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무엇보다 사역적 우선순위가 분명함으로 갈등할 필요도 없다. 구령사역과 제자양성을 위해 온 몸을 던지는 승부사 기질이 있다. 하여 사역적 열매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 편으로 비즈니스가 선교를 위한 수단이 됨으로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다. 또한 선교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에 일터에서 불성실하게 비춰질 수 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직업을 하나님나라의 선포라는 상위단위 밑에 둔다

Business for Mission은 사업이 선교를 위한 수단이다.
Business and Mission은 사업과 선교가 병렬이다.
Business as Mission은 사업과 선교가 하나이다.

2. Business and Mission

이 모델은 비즈니스와 미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의 병렬식이다. 비즈니스는 시장논리로서 진행되는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 금이나 자원으로 삶의 터전을 구축한다. 이는 이원론적인 선교 접근이다. 그간 주로 선교적 열정이 있는 평신도들이 이 모델을 선호하였다. 선교는 어차피 장기전이다.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터전 위에서 사역을 하기에 안전하고 부담이 덜하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불분명함으로 선교적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마음과 시간 그리고 재정 분산으로 인하여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이 부류에 속하는 선교사는 사역적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업가로서 역시 준비됨이 크지 않다.

열방네트워크 대표인 이평안 선교사는 "자기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해도 실패할 확률이 50%를 넘는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안 되는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설령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잘 해내더라도 그것이 선교적으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 가

지 대안이라면 팀워크로서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이것 저것을 다 잘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업적 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과 목회적 부르심으로 준비됨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면 나름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3. Business As Mission

이 모델은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를 이해한다. 모든 삶의 영역이 비즈니스 구조 속에서 해석된다. Business와 삶을 일원화 하는 총체적인 통합적 선교라 말할 수 있다. BAM 모델은 2004년 로잔 포럼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북

음전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과 직업이 선교 그 자체가 된다. 이것은 이유를 추구하는 사업체를 매개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국민들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열방의 제자화지만 그와 동시에 현지인들에게 일자리, 수입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수준과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동일선상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첫째, 비즈니스 과정 자체가 선교적 가치를 담을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활동임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과 결정,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럴 때 비즈니스는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둘째, 수익 창출은 가장 기본적인 지속조건이다.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는 정직한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야하고 현지 국가 국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윤 추구는 가난에서 고통 받던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는 데 일조를 담당하게 된다.

셋째, 선교적 시각이다. 이 사역을 통해 총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적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복음전도를 위해서 삶의 다양한 영역을 하위단위로 두는 것에는

장기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현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이 있을 때에만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이렇게 삶과 사업 그리고 사역이 분리될 수 없다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모델은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이는 비즈니스와 미션이라는 전혀 다른 내용이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 집으로서 자칫 혼동과 애매모호함 속에서 목표점을 잃을 수도 있다.

맺음 말

오늘날 비즈니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들의 전 생애,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사람들의 세계관까지 지배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선교현장의 필요 측면에서 볼 때 복음화율이 낮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실패율이 60% 수준이다. 실패율이 80%인 국가도 있다. 따라서 복음은 Good News인데 일자리가 없어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이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수단이고 선교의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는 선교의 기반이다. 이는 현지인을 자립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편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구령사역에만 초점을 맞출 때 그들은 홀로 서기가 어렵다.

문제는 선교사로서 누구나 비즈니스적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 소명과 은사와 준비됨이 있는 사람에 한 해서이다. 또한 비즈니스를 선교에 접목한다 할지라도 확실적인 필요는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맞는 유형을 찾는 것이 과제일 뿐이다.

속담에 황소도 부릴 언덕이 있어야 힘을 쓴다고 했다. 세계선교는 어차피 멀리 내다보며 가야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할 언덕은 어디이며 방편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비즈니스선교가 한 대안이다.

jsong007@hanmail.net

선교 편지

인도

선교사역 행진!
13억 인도 복음화 사역 보고서

1980년 총회(GMS)의 파송을 받은 정윤진 목사, 변미화 선교사는 인도 벵갈로에 정착하여, 인도 복음주의교회(IEC교단이 됨)를 개척 설립하였고, 인도 전역에 확산되어 있으며 곧 바울유초중고등학교(St. Paul High School)를 설립하여, 금년 2월 5일에 제 27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유치원 3년 과정을 마치고 초등학교로 진급하는 139명 학생, 초중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140명의 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PU College에 진학하는 153명의 학생들이 졸업하였습니다. PUC를 마치고 유니버시티로 진학하는 124명의 학생들, 또 2016년 2월 5일 같은 날 졸업식과 학위수여식을 한 아시아신학대학및대학원(AECS)은 제26회 졸업식과 학위수여식을 하였습니다. 학사학위 19명, 석사학위(M.Div.) 25명, M.Th. 석사학위 12명, 명예박사학위 2명, IEC교단 목사 안수식 15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모든 한인 성도들이 세계선교를 위하여 매일 열심히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동역하여 주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마7:16, 20, 요15장).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 감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3억 인도 복음화 선교사역 수행

IEC Trust(현직법인체) 산하에 있는 바울유초중고등학교, PU College, 아시아신학대학및대학원, 인도복음주의 교회/IEC, 고아와 과부, 나환자들을 격려하고 도우는 일과 계속적으로 교회개척설립을 위하여 소소한 선물과 섬의용 물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물이 있어야만 되는 인도의 문화이며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관습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수 많이 투쟁하고, 참고, 기다리고, 어떤 일들은 수 년 동안 늦어지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대정부 관계가 있는데-교육부의 초중고등학교 담당국장과 과장 그 산하의 직원들이(장학관, 장학사들 등) 자주 자주 이런 저런 구실로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는데, 올 때마다 각자에게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보고서를 쓴다고 합니다. PU College 담당 국장과 산하 직원들은 더 세도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변호사(6-개 민사 재판 진행 중, 학교 운동장의 작은 부분이 자기 것이라고 우겨대는 일 등)와 공인 회계사 등 경찰서, 정부인허가 문제 때마다 섬의용 선물이 필요합니다.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불펜, 사탕, 셔츠, 기념품, 점심 식사 대접 등을 하는 것이 이곳의 관례(전통 내지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은 선교사역 전진을 위한 섬의용과 선물로 잘 사용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들, 20년 전후가 된 간부직원들에게도 이따금씩 격려의 선물로 선물을 합니다. 곳곳에 배려의 마음과 손길이 많이 가야 됨으로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 중보기도 하여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전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는 우리들, 선교사역, 모든 동역자들이 되도록 날마다 간구와 중보의 기도를 드려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롬 8:26,34, 열6:18-20, 골4:2-4).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인도한국선교부 대표 정윤진 외 일동
aeccsic@hanmail.ne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단 9:24)

미주 목회자를 위한 특별 성경 세미나

일시: 2016년 3월 1일~3월 2일 오전 9:30~오후 11:30

장소: 한미장로교회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강사이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미국테네코 석유회사 근무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
- 현 뉴욕만민제자교회 담임

초청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자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P.O.Box 610179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협찬: 남가주여성목사회, O.C여성목사회, 미주크리스천, 크리스천비전 기독교일보,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크리스천헤럴드, 우리복음방송, Ch TV

사모 영성 세미나

“이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초청합니다.”

주제: “사모도 목회자다”



강사 이성자 사모

- 강 사 : 이성자 (목회학 박사)
- 일 시 : 세미나 강의 3월 1(화)-2일(수) 1시 오후 -4시 오후
저녁 집회, 2월 28일(주일) 오후 4시
3월 2일(수) 저녁 7시 30분
- 장 소 : 세계 아가페 선교 교회
- 주 소 : 933 S. Lake St., Los Angeles CA90006
- 세미나 참석 문의 전화 : 213-820-9414, 213-500-8778, 714-892-9578

- 인천 교육대학교(문학)(BA)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육 및 상담)
- 미국 California Trinity Bible College & Seminary 대학원 (신학 Th.M)
- 미국 Indiana Grace 대학원 (목회학 D. Min)
- 1급 정교사 및 15년 교직 (교육공무원) 근무
- 2급 상담사 자격 취득 (연세대학교)
- 월간목회 주최 전국목회자사모수기 현상 모집 당선(특등)
“제목: 영문 밖의 길이라기에”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국 목회자
- 사모세미나 및 국내외(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필리핀, 오스트리아) 사모세미나 강사
-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사모
- 세종 평화의동산 부원장

협찬: 남가주여성목사회, O.C여성목사회, 미주크리스천, 크리스천비전 기독교일보,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크리스천 헤럴드, 우리복음방송, Ch TV

제97주년 삼일절 기념 예배 및 사랑의 결혼식 후원 음악회

The 97th 3.1 Movement Commemorative Ceremony

Feb. 27. Saturday, 2016, 6:30PM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월서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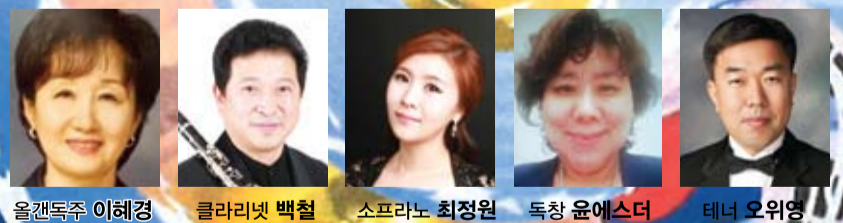
문의 (949) 705-7879 (213) 820-9414

*티켓에 있는 번호를 추첨하여 상품을 증정합니다.

후원: LA한인회, 한인동포재단, 미주3.1여성동지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OC여성목사회, 국민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교일보,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투데이, 미주우리방송, 한아름합창단, 에버그린여성합창단, LANAM성서교회합창단, LACS합창단, 목사장로부부합창단, 남가주장로협의회



설교 민종기 목사 회장 엄규서 목사 음악감독 이경호 목사



음향감독 이혜경 클라리넷 백철 소프라노 최정원 독창 윤에스터 테너 오위영



LANAM성서교회합창단 한아름합창단 Los Angeles Christian Singers



남 가 주 한 인 목 사 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President, Rev. Kyu Su Um, Ph.D.
후원 및 광고 문의 Tel: (213) 820-9414 • (949) 705-7879
보내실 주소: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Pay to Order: SCKMA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04)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28)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에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기초들과 신학적 기초에 이어 한인교회를 위한 철학적 기초인 "성경적 세계관 및 인생관에 근거한 성경적 교육관"을 그 기본적인 철학적 담론들을 통해 살펴보는 과정에 있으며, 그 기본적인 철학적 담론들 중 형이상학이라는 범주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그 하부 범주들 중 인간론(On human: View on human)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번에는, 기본적 철학적 담론들 중 두 번째인 가치론(Axiology)범주 중에서도 윤리학(Ethics)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치론의 하부 범주 중 미학(Aesthetics)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들이 묻는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과 대답, 그 가치에 대한 담론이 한인들과 한인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어떠한 교육 철학적 기초가 되어 주는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학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하는데, 미학에 대한 성경적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아름다움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만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 그리고 정교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역자들에게 미학에 대한 논의들이 기독교 교육의 철학적 기초로서 진정으로 의미 있게 되려면 위

이로 인해 우리 한인들과 그 자녀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부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자아 가치감과 자아 존중감이 현격하게 낮은 상태로 떨어진 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아름다운 여성의 척도는 피부가 희고, 금발에 큰 파란 눈, 그리고 팔뚝신의 몸매와 긴 다리를 가진 백인여성입니다(문화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모든 다른 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은 점점 더 백인 여성에 가깝게 형성되었습니다). 흑인 혹은 동양인만의 매력력이 있음이 회자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의 척도는 백인 여성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의 척도는 바로 힘의 구조와 직결되어 있다는

미학의 성경적 진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 사회적 미의 척도 배경의 정치적 힘의 구조 밝히고 조화와 정의 가르쳐야

미학(Ethics)이란 간단히 말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 아름다운 것은 가치가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연구하는 철학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흔히 예술적 작품 및 자연에서 인간들 무언인가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곤 하는 구조는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가치가 있길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인가를 묻곤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예술적 작품이나 자연 속에서만 추구하는 것에 국한하지는 않으며, 보다 확장 되어서, 인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추구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미학(Aesthetics)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일이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사 이러한 단어를 듣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한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만큼 생경한 개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고민하는 우리들이 미학에 대하여 무엇이, 왜 알아야 하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로서 위에서 간단히 알아 본 미학적 인식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무슨 상관이 있는지입니다. 철학

에 소개한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하고 이를 사역에 녹여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제대로 기능해야만, 조화롭게 공존해야만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이 인간의 욕심으로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이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한인들과 한인 자녀들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며, 이에 우리들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인들과 한인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된 세계가 제대로 기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기독교적 미학적 지혜와 통찰력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되, 특히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또한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인들과 한인들의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의 척도가 백인들의 가치로 점철된 미국 사회의 소수인종으로서 한인들과 한인자녀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부인당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제대로 기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아름다움이 왜곡되어 버린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것입니다. 즉 이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백인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힘을 가져왔기 때문에 생겨난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유색인종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이 성경적 아름다움과는 정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조화와 균형이 진정한 아름다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직한 힘의 분배와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온 왜곡된 아름다움이 여전히 진정한 아름다움인양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미국 사회의 세속적이면서도 차별주의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이 결코 진정한 아름다움의 척도가 아니며, 성경적인 아름다움의 개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한인들과 한인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움의 척도 배경에 있는 정치적 힘의 구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고 왜곡된 아름다움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조화를 이루고 관계가 정의로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학에 대한 담론은 한인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철학적 기초 중 하나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sina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명 가량이었더라(삼상22:1-2)

사람은 평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미래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평생에도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겸손

하게 나오는 사람, 빛진 자-나의 빛을 탐갈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을 알고 나오는 사람 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 다시 부활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애통해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삼상22:3-4)

오늘 은혜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일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부모가 연로해 위험한 피난길을 같이 다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진 것이 부모님

을 모암 왕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증조모 룻이 모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3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입니다. 이 한 마디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기도도 모든 일을 결정하겠다는 결단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지를 깨달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삼상 22:5)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즉시 철저히 순종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갓 선지자가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다윗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즉시 야벳! 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사람들이 언약의 땅을 떠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모암에 가있으면 안됩니다. 오늘 내 곁에 갓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목 이새의 아들이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니라(삼상22:7)

사울왕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유다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국무회의를 엽니다. 사울왕은 신하들에게 내 편은 한사람도 없다고 역을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악한 사람들을 통해 교훈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다윗이 너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 모두 내가 해주었다 하든지 뇌물로 신하들의 충성을 샀습니다. 내가 너희에

게 천부장을 주었고 밭과 포도원을 주었는데 왜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든지 무슨 축복을 받든지 사람이 세우거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금 너희가 다 공모하며 나를 대적하며(삼상22:8)

분문은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거짓말로 이 간질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했다고 하는데 다윗과 공모한 사람도 없었고, 다 나를 대적한다고 하는데 사울을 대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선포해 왕을 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은 마치 자신이 다윗과 요나단과 모든 백성들에게 역을하게 당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 일로 인해 온 제사장의 성읍이 몰살당하

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지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서 거짓말하거나 간질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 질투해 죽이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약한 마음을 품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신실하게 해야겠습니다.

토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고(삼상22:9-19)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고(삼상22:9-19) 분문은 예물사람 도역의 악한 행실을 보게 됩니다. 도역은 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물고 식물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아이멜렉이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물은 적이 없고 다윗이 급히 와서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 중에 있으니 식물을 주고 칼을 달라 해서 식물과 칼을 준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왕 앞에 선 아이멜렉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윗은 충실한 사람이라고 변호합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변호한다고 제사장과 온 식구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기뻐서 세운 제사장을 죽이려 하지 않으니까 도역이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성읍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까(시52-악한 자의 심판). 진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구 광운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6:00(매일)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사교동 1330-20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04(270)	승송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7길 29(남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동 415 www.yang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웅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10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동하는 지구촌의 증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전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70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국내외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및 선교사자녀(MK) 등
 도합 5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이 시대 최대규모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제3차 선교사자녀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 400명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KWMC2016!**
 KWMC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선교대회입니다.
 아래 대회들은 모두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동일한 일시인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동 일한 장소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개최됩니다.

영어권대회 English Conference
 18세 이상 영어권 대학생/청년
 이동열 선교사
 GKYM 사무총장

어린이선교대회 **청소년선교대회**

3-12세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13-17세
 고현진 전도사
 고유진 전도사



등록/문의 www.kwmc2016.com / kwmc2016@gmail.com
 KWMC • 인도네시아 62-813-8100-9905, 070-8221-1361 • 미국 1-213-507-3875

KWMC2016 6월 6-10일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한어권/영어권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1차 3/31 마감	□ \$300	□ \$200	□ \$150	□ \$100	□ \$50
2차 5/15 마감	□ \$325	□ \$225	□ \$175	□ \$125	□ \$75
3차 6/5 마감	□ \$350	□ \$250	□ \$200	□ \$150	□ \$100
KWMC 대회숙박	□ 기숙사 2인1실 \$15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2 베드룸) \$20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 베드룸) \$215 /1인당 (4박5일)			동숙-무료 별도침대 □ \$50	

*숙박을 안하실 경우 등록금만 내시면 됩니다. * 하루만 참가하실 경우(DAY-PASS) \$100 입니다.
 *한 교회에서 단체등록시 10명 이상은 등록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비 예외)

일시	대회	대상
6/3(금)-6/6(월)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전세계 한인선교사
	MK(선교사자녀)대회	17세 이상 선교사자녀
	MK청소년선교대회	13-16세 선교사자녀
	MK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선교사자녀
6/6(월)-6/10(금)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18세 이상 한어권
	차세대영어권선교대회	18세 이상 영어권
	청소년선교대회	13-17세 청소년
	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어린이

등록/문의 KWMC
 온라인등록 ▶ www.kwmc.com
 이메일등록 ▶ kwmc@kwmc.com
 전화 ▶ 516-277-2081, 2082
 팩스 ▶ 516-686-6128
 ▶ 등록비가 인상되기 전에 속히 등록하시고 항공편도 속히 예약하실수록 저렴할 것입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한인세계선교사회 KWMMF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Association

WVK 선교사자녀대회

CTS 기독교TV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901 E Alost Ave, Azusa, CA 91702